

# 리아호나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이자  
본보기, 12~26쪽

친구란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52쪽  
개심했습니까? 알아보는 열 가지 방법, 56쪽  
자녀들과 성전에 관해 이야기하기, 62~64쪽





**배** 우들이 재현한 예수 그리스도 생애의 장면들을 [biblevideos.lds.org](http://biblevideos.lds.org)에서 볼 수 있다. 구주의 생애 마지막 주에 있었던 몇몇 장면이 26쪽 기사에 실려 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성역”(18쪽)이란 기사에서, 우리 삶에서 본받을 수 있는 구주 성역의 특징 다섯 가지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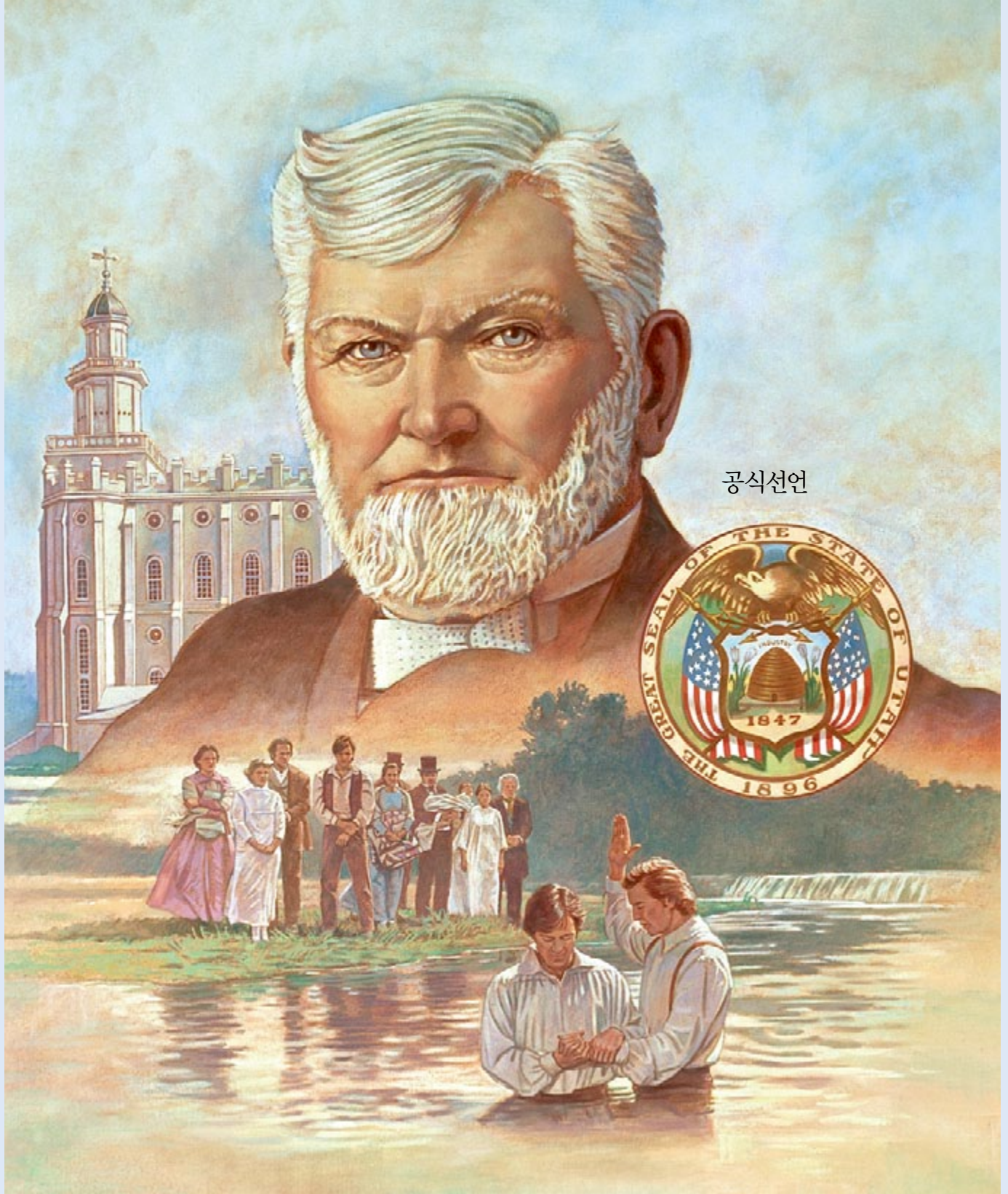




“그리스도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발산되는  
신성한  
권세 또는  
영향력입니다.  
그것은  
만물에게 빛과  
생명을 줍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십이사도 정원회, “양심의  
평안과 마음의 평화”,  
리아호나, 2004년 11월호,  
15쪽.





공식선언

성화: 로버트 티 버넷

## 윌포드 우드럽

윌포드 우드럽은 1840년대에 영국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그의 봉사 덕분에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다. 윌포드 우드럽은 나중에 **유타 세인트 조지 성전**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교회 회장으로서는 그는 **유타**가 주로 승격되는 일을 추진했다. 그는 또한 계시를 받고 **공식선언 1**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복수 결혼을 금하는 것이었다.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 성약

**특집 기사**

- 12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개척자들의 시각  
개척자와 초기 선지자들이 부활에서 희망을 찾는 것에 대해 간증한다.

- 18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성역  
러셀 엠 넬슨 장로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속죄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분 생애의 다섯 가지 특징을 닮을 수 있다.
- 26 부활절 주간  
주님의 생애 마지막 주에 구주께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다.
- 30 침례를 준비하는 아이를 돕는 방법  
제시카 라슨, 머리사 워드슨  
자녀의 침례를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 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34 성전으로 이끌려서  
자이로 마자가르디 장로  
사람이 개종하는 데 성전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십시오.

**교회 본부 기사**

- 8 4월 연차 대회 노트: 함께 공부하는 연차 대회 말씀  
그레그 배티
- 9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좋은 친구의 중요성
- 10 우리의 믿음: 위로와 영감을 주며 진리를 증거하는 성신
- 36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식수대 앞에서 물을 마시며  
애런 엘 웨스트

표지  
앞표지 사진 삽화: 팀 타가트 © IRI. 뒤표지 사진  
삽화: 매튜 라이어 표지 안 사진: 크리스틴 슐스카





40

**40**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매튜 디 플리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진하기  
위해 졸탄은 몇 가지 좋은 것을  
포기해야 했다.

52



- 42** 질의응답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이 왜 나쁜지를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 44** 신권 부름에서 봉사하는 방법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다가가고 가르치며 감명을 주는 핵심  
요소를 배우십시오.
- 45** 우리들 공간
- 46** 우리에게 물몬경이 필요한 이유  
물몬경이 반드시 필요한 네 가지 이유.
- 48** 충실한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 구간다  
신디 스미스  
이 청남 청녀들은 복음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강화되고 있다.
- 5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진정한  
친구란?  
일레인 에스 돌튼
- 54** 나는 어떻게 아는가: 구원으로  
나아오라는 권유  
에머슨 호세 다 실바  
마침내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나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 56** 자신이 개종했는지 알 수 있는 열  
가지 방법  
타일러 오토  
개종에 관해 배우면, 복음 안에서  
자신의 발전 정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 59** 포스터: 열심히 노력한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61

- 60** 데니 할머니의 꼬마 선교사  
에밀리아 마리아 구이마라에스  
코리어  
복음에 대한 빅터의 사랑으로  
할머니는 개종하게 되었다.
- 61** 특별한 증인: 우리 교회 이름은 왜  
이렇게 길까요?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62** 성전 건축을 축하하며!  
다시 젠슨  
전 세계 어린이들은 그들 가까이에  
성전이 세워질 때 함께 축하한다.
- 64** 성전에 관한 질의응답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65** 음악: 가족은 영원해  
루스 듀어 가드너, 바냐 와이  
왓킨스
- 66** 가정에서 초등회 적용하기: 예수  
그리스도는 후기에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다
- 68** 유적지 탐방: 교회가 조직된 곳  
젠 핀보로우
-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 81** 선지자 초상화: 윌포드 우드럽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여러분의 초능력 눈을  
사용하세요.



2013년 4월호, 제50권, 제4호  
리아호나 10784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작편집장: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미터 예프 우호트도로프

심사도정원: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리셀 벨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다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덴슨

편집장: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엠 보벨,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콜드 이세, 앤서니 디 파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더 워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린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장: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장: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앨리사 켈레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배렛, 라이언 카, 데이비드 덕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케트 디 플리드, 민디 라에 프리드만, 히카리 로프터스, 리아 맥클레넨, 마이클 알 모리스, 리처드 엠 롭니, 폴 벤덴버그, 줄리아 우드버리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팀: 저넷 앤드류, 페이 피 맨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캐리 린 시 해린, 콜린 힐글리, 에릭 피 존슨, 스티브 엠 무어, 브래드 테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슨

제작 팀: 콘니 바숏프 브릿지,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틀,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캐슬린 하워드, 드니스 커퍼, 지나 제이 날슨, 가일 타테 퍼피티

사건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에반 할슨

통 권: 제55호, 제50권, 제4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hanmail.net](mailto:koread@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church.or.kr](http://www.l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이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로 보내 주시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시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첫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를 클릭하십시오.

April 2013 Vol. 37 No. 4,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성역”, 18쪽: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닳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면을 이야기한다. 이 다섯 가지 면과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토론한다. 구주의 삶에 대한 경전 이야기를 읽거나 이 다섯 가지 면을 보여주는 성경 비디오([biblevideos.lds.org](http://biblevideos.lds.org))를 시청한다. 구주의 삶과 그분의 성역에 대해 간증하고 “거룩함도 더욱”(찬송가, 60장)을 부르면서 마친다.

“진정한 친구란?” 52쪽: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되어야 할 친구의 유형에 대해

토론하고,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가 내린 정의를 읽는다. 참된 친구로서 여러분을 대해 준 누군가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친구가 되게 하는 자질들에 관해 토의한다.

“성전 건축을 축하하며!” 62쪽: 가족과 함께 자녀들이 성전을 축하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보여 주는 그림을 본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성전 사진을 보여 주고 성전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성전에서만 가족이 인봉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가족은 영원해”(65쪽)를 부르면서 마친다.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http://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가 실린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르침, 8, 9, 30
- 가족, 30, 65
- 개종, 34, 54, 56, 60
- 계시, 10, 46
- 교회 조직, 61
- 기도, 18, 45
- 기쁨, 37
- 모범, 48
- 물론경, 46
- 봉사, 44, 70
- 부활, 4, 12, 26
- 사망, 4, 12, 39
- 선교 사업, 34, 39, 48, 52, 54, 60
- 성신, 10, 36
- 성약, 7
- 성전 사업, 7, 64, 38, 65, 80
- 성전, 34, 62
- 성찬, 18
- 소망, 12
- 속죄, 18, 26, 45
- 순종, 40, 42, 56
- 신권, 44
- 신앙, 48
- 연차 대회, 8, 37
- 영감, 36, 38
- 예수 그리스도, 4, 18, 26

- 우선순위, 40
- 우정, 9, 52, 54
- 월포드 우드럼, 81
- 의식, 18
- 인내, 59
- 정결, 42
- 조셉 스미스, 66
- 침례, 30
- 표준, 42, 45
- 회복, 66
- 희생, 40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실재성에 대한 간증은 희망과 결의의 원천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1969년 6월 어느 여름날과 그 이후로 지내 온 모든 시간이 그러했으며, 제가 다시 어머니를 뵈게 될 때까지도 그럴 것입니다.

한시적인 이별의 슬픔이 금세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재회를 향한 희망 이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을 통해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고, 성신께서 제게 부활의 실재성을 확신해 주셨기에, 저는 성결해지고 부활한 존재가 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그날을 마음속에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의인의 부활에 나아올 자들이니라. ....”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만민의 심판자로 계시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니라.

이들은 예수 곧 자신의 피 흘림을 통하여 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새 성약의 중보자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된 의로운 자들이니라.”(교리와 성약 76:65, 68~69)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리를 끊으셨기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영광스러운 진리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었을 때 오는 쓰는 듯한 고통을 없애 주며, 즐거운 기대와 확고한 결의를 갖게 해 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란 선물을 주셨으며, 그 덕분에 우리의 영은 육적인 불완전함이 없는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앨마서 11:42~44 참조) 제 어머니 역시 세월의 흔적과 오랫동안의 육체적인 고통이 사라진 젊고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어머니와 우리는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제 어머니와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추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사랑하시는, 부활하신 아들이 영광 속에 거하는 곳에서 살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곳은 가족으로서의 삶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한 진리에 대한 간증으로써, 저는 제 자신과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 삶에 작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장 높은 등급인 해의 왕국에 갈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겠다는 결의를 키웁니다.(교리와 성약 76:70 참조)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추구할 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찬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식 때마다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권유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주를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그분의 희생 상징물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경전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고, 성찬식에서 영감받은 연사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상기합니다. 성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데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찬 기도에서 하나님은 성신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모로나이서 4:3; 5:2; 교리와 성약 20:77, 79 참조) 저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제가 그분과 개인적으로 접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린 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일, 그분을 대신해 제가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우**리는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배움이 되게”(니파이전서 19:23) 해야 한다. 교리와 성약 20편 76~79절에 나오는 성찬 축복 기도문을 읽는다. 성찬 축복문에 관한 아이어링 회장의 가르침을 읽은 후,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 다시 함께 사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권유할 수 있다.

섬겨야 할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런 시간을 거듭 보내면서 제 소망은 자애로 변모하고, 구주의 속죄와 부활로 제게 자비가 허락되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자 우리의 구주이시며, 완벽한 모범이자 영생으로 이끄는 안내자이심을 간증합니다. ■



### 하나님과의 개인 접견

**아** 이어링 회장님은 성찬 축복 기도를 들을 때 마치 하나님과 접견하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를 생각하신다. 이 질문을 일지에 적고 이번 달 동안 일요일마다 깊이 생각해 본다.

깊이 생각하면서 성신의 느낌을 받으면, 그 느낌도 일지에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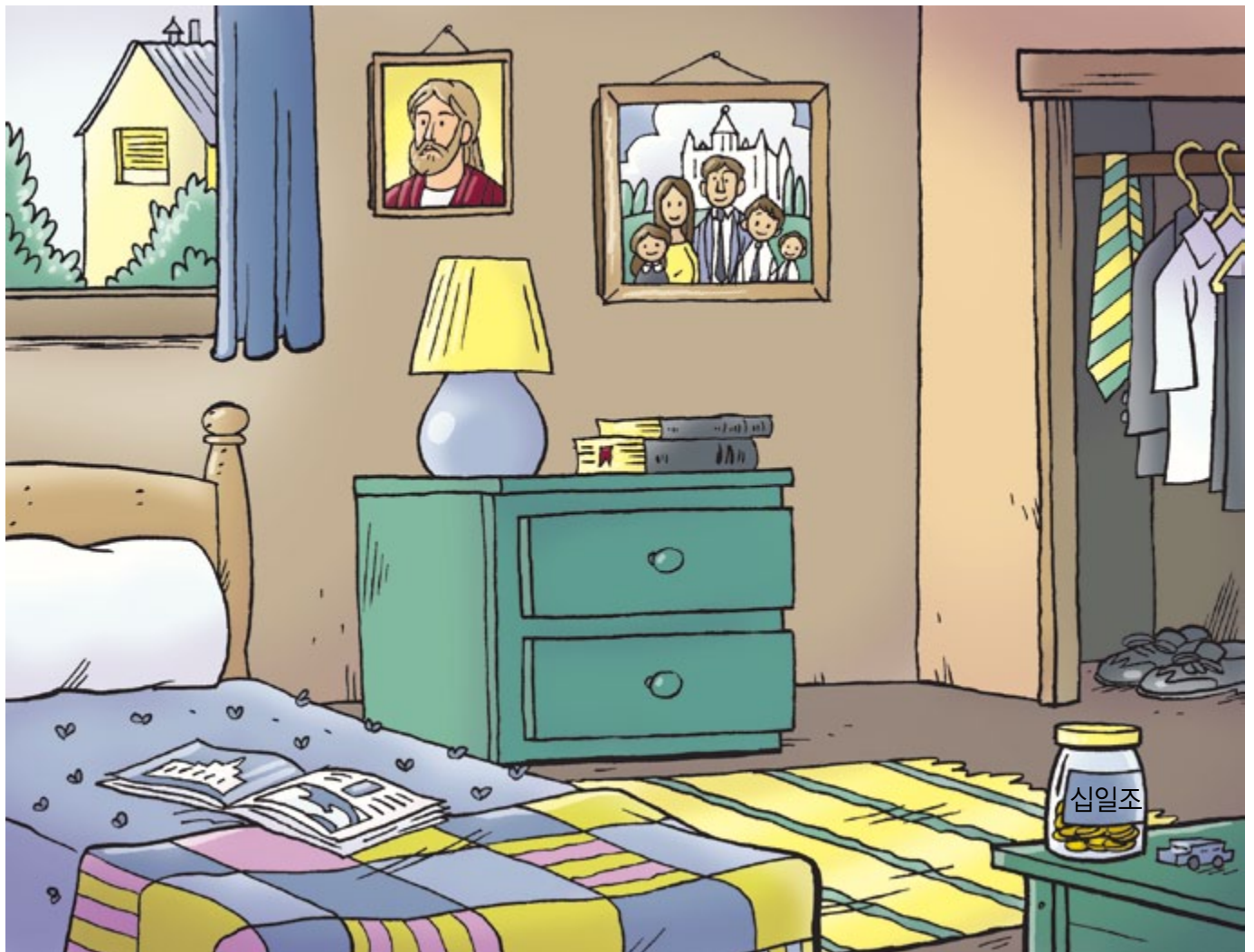
-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 나는 무엇에 대해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섬기기를 바라시는가?

### 어린이

### 언제나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제** 이름은 “항상 [구주]를 기억”(교리와 성약 20:77)하려고 합니다. 제이콥의 방을 둘러보세요. 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reliefsociety.lds.org](http://reliefsociety.lds.org)에 접속한다.

## 성전 성약

**몬** 슨 회장은 “우리는 성전에서 구원 의식을 받아야만 영원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이나 수고도 기꺼이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다. 성전에 아직 가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성스러운 성전 의식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운다.
- 살아 있는 선지자를 지지하고 따른다.
- 십일조를 바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며, 정직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여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갖춘다.
- 시간, 재능, 재물을 바쳐 주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돕는다.
-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한다.<sup>2</sup>

몬스 회장은 더 나아가 이렇게 가르쳤다. “[성전]에서 맺는 성약을 기억한다면 모든 시련을 더 잘 견뎌 내고 유혹을 더 잘 극복해 낼 것입니다.”<sup>3</sup>



### 성구에서

교리와 성약 14:7; 25:13; 109:22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2쪽.
2. *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업적*(2011년), 21쪽 참조.
3. 토마스 에스 몬슨,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3쪽.
4. *내 왕국에 속한 딸들*, 29~30쪽.
5. 사라 리치, *내 왕국에 속한 딸들*, 30쪽.

## 신앙, 가족, 구제

###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나부 성전이 헌납되고 나서 5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 모여들었다. ……

추위와 더위, 굶주림과 가난, 질병과 사고, 죽음까지도 무릅써야 하는 [서부로의] 여행에서 후기 성도들을 지탱해 줄 만한 것은 성전 성약의 힘과 권능과 축복뿐이었다.”<sup>4</sup>

많은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사라 리치는 성전 봉사자로 일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성전에서 주님의 영의 영향력[으로] …… 배운 지식과 신앙이 아니었다면 그 여행은 그저 무모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있었으며, 우리가 바로 …… 선택된 백성이라는 확신으로, 슬픔보다는 구원의 날에 누릴 기쁨을 느끼며 그분을 신뢰했다.”<sup>5</sup>

그 대이동은 충실한 후기 성도 여성들에게는 “무모한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성전 성약으로 어려움을 견뎌 냈다.

###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나는 정기적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는가?
2. 나는 내가 돌보는 자매들에게 성전 축복을 받으라고 격려하는가?



# 함께 공부하는 연차 대회 말씀

연차 대회 말씀을 복습하는 방법을 바꾸자 우리 가족의 복음 토론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레그 배티

**오**랫동안 우리 가족은 연차 대회 말씀을 한 번에 하나씩 함께 읽어왔다. 처음에는 그냥 탁자 주위에 둘러앉아 돌아가며 큰 소리로 한 단락씩 읽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멈추는 법도 없이 단숨에 읽어내려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읽은 내용을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 아내와 나는 식구별로 연차 대회 특집호를 사 주었고, 다음 연차 대회 전까지 말씀 전체를 다 읽으려면, 매주 몇 개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계획했다. 어떤 주에는 말씀을 하나만 읽었고, 다른 주에는 두 개를 읽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들 말씀을 공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게 했다. 그런 후 우리는 가정의 밤 시간에 표시한 부분을 서로에게 가르쳤다.

종종 자녀들이 던지는 질문으로 토론이 벌어졌고, 아내와 나는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묻기도 했다. 우리는 십대 자녀들이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고 세미나리, 교회, 개인 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나누는 것을 소중하게 경청했다. 이것은 매우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기적으로 서로 가볍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곧 우리는 아침에 경전을 공부할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었다. 어떤 날은 몇 구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 구절을 두고 토론하고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그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느라 시간이 금방 가버릴 때도 있었다.

이제 우리의 아침은 각자의 길을 나서기 전에 나누는 대화, 웃음, 단합으로 꽉 채워진다. 우리는 매일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라는 선지자의 권고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강화하는 가족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연차 대회에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노력한 결과이다. ■

그레그 배티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십시오

“이 대회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들은 *엔사인과 리아호나* 5월호에 실린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숙고하며 삶에 적용하시도록 권고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폐회 말씀”,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113쪽.





# 좋은 친구의 중요성

**친**구는 우리에게, 특히 청소년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준다. “친구는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sup>1</sup> 좋은 친구를 선택하면 “[그들은] 힘이자 축복[이 될 것이다.] …… 친구의 도움으로 여러분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더욱 잘 생활할 수 있다.”<sup>2</sup>

이번 호 52~53쪽에서, 본부 청년 회장인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는 좋은 친구가 되고 또 그런 친구를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다. 돌튼 자매는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면을 찾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핵심입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들이 이런 원리에 따라 우정을 쌓는다면, 단순히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상에서 “친구”가 되는 것 이상의 지속적인 관계와 사교 기술을 익히게 될 것이다. 부모로서 여러분은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고, 복음대로 살도록 격려해 줄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다음 제언이 도움이 될 것이다.

### 청소년을 위한 가르침 제언

- 가족이 다 함께 경전에서 선한 친구의 모범을 찾는다. 우정을 돈독히 해 주는 자질들에 관해 토론한다. 다윗과 요나단(사무엘상 18~23장 참조), 룯과 나오미(룯기

1~2장 참조), 엘마와 모사이야의 아들들(모사이야서 27~28장; 엘마서 17~20장 참조)을 생각해 본다.<sup>3</sup>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의 친구 편을 살펴본다. 우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청소년들과 이야기한다.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혹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청소년들이 나누도록 한다.
- 이번 호에 실린 돌튼 자매의 기사를 읽는다. 돌튼 자매의 딸인 에이미가 세운, 좋은 친구를 찾겠다는 목표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녀들이 찾고 싶고 또 되고 싶은 친구의 유형과 관련해서 목표를 세우도록 돕는다.
- 가정의 밤에 우정을 쌓는 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다음과 같이 할 수도 있다.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웃는 얼굴로 대하고 그들을 아끼는 여러분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인다]. 모든 사람을 친절과 존경심으로 대하고 주변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삼[간다.]”<sup>4</sup>

### 초등회 아이를 위한 가르침 제언

- 친구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포함된다. 2009년 3월호

### 우정에 관한 성구

잠언 17:17;18:24  
전도서 4:9~10  
마태복음 25:34~40  
누가복음 22:32  
모사이야서 18:8~9

리아호나에 실린 “갈렙의 힘이 되어 주기”를 읽고 자녀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한다.

-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 어떤 친구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주 예수를 닮으려고”<sup>5</sup>를 함께 부른 후, 어떻게 하면 여러 상황에서 구주처럼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 자녀와 함께 이야기한다. ■

주

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16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6쪽.
3. Jeffrey R. Holland, “Real Friendship,” *New Era*, June 1998, 62-66 참조.
4.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16쪽.
5.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 위로와 영감을 주며 진리를 증거하는 성신

**성**신의 은사는 이생에서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축복 중 하나이다. 성신은 우리를 위로하고, 깨끗하게 하며, 우리에게 경고하고, 영감을 주며,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성신은 우리를 “소망과 완전한 사랑”(모로나이사 8:26)으로 채울 수 있다. 성신은 “모든 것의 참됨”(모로나이사 10:5)을 가르친다. 우리는 성신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영적인 은사를 받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성신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다.

침례 받기 전에도 종종 성신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합당하기만 하다면 성신과 항상 함께할 수 있다. 이 은사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인수함으로써

받게 된다.(사도행전 19:6; 교리와 성약 33:15 참조) 그때부터 매주 안식일에 성찬을 취함으로써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며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하는]”(교리와 성약 20:77)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종종 영이라고도 부르는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교리와 성약 130:22)

“주의 영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기]”(힐라맨서 4:24)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합당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결한 생각을 하고, 고결한 삶을 살며, 계명을 지켜야 그렇게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니파이후서 31:13, 17; 32:5; 제3니파이 27:20; 모로나이사 10:5~8; 조셉 스미스—역사 1:70을 참조한다.

## 이 은사를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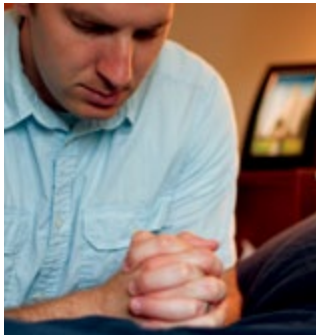
“다른 모든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이 은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회원 됨을 확인하기 위해 신권 소유자들이 확인 안수를 할 때, ‘성신을 받으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은 성신이 무조건 여러분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전에는 주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는 않는다.]’(창세기 6:3)는 경고가 나옵니다. 확인을 받으면,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나, 이 권리는 오직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과 합당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셉 비 워스린(1917~2008)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사”, *리아호나*, 2003년 5월호, 26~27쪽.



성신의 은사를 받고 난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함으로써  
우리 삶에 성신의 영향력이  
임하게 할 수 있다.

기도한다.



경전을 연구한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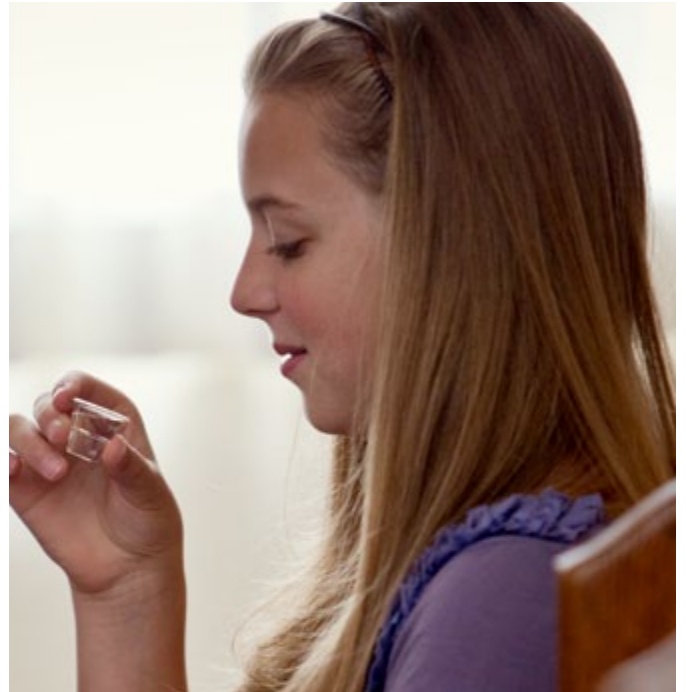


사진 출처: 크리스티나 스미스, 이브 투프트, 코디 벨,  
매튜 라이어



성전에서 예배한다.



건전한 매체를 보고 깨끗한  
언어를 쓰며, 정결한 생각을  
한다.



# 삼과 죽음

## 부활에 대한 개척자들의 시각

교회의 초기 개종자들이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미국 서부로 이동할 때, 그들은 죽음에 직면하기도 했으나 회복된 복음을 믿는 그들의 새로운 신앙으로 강화되었다. 다음은 초기 교회 회장 다섯 분의 위로가 되는 가르침과 부활에 대한 성도들의 희망을 보여 주는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발췌한 것이다.

1866년에 뉴욕에서 유타로 이주하던 중 자신의 어린 아들이 죽은 한 무명의 스칸디나비아 출신 후기 성도의 이야기.

“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작은 무덤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묻었다. 아이가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추모객도, 공식적인 장례식도, 조화도, 추모곡도, 또 추도 연설조차도 없었다. 이윽고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떠나기 전에 모국어인 덴마크어로 다음과 같이 짙막한 헌납 기도를 드렸다. ……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는 이 보배와 같은 사랑스런 아이를 주셨으나 이제 다시 불러가셨나이다. 아이가 부활의 아침이 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무덤가에서 일어서며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잘 있거라. 내 귀여운 아들 한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사무치게 슬픈 마음으로 야영지를 향해 결연하게 돌아갔다.”<sup>1</sup>

조셉 스미스(1805~1844) 회장

“세상에서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통곡하는 사람이 비록 죽은 사람의 육신은 땅에 묻혔으며 다시 일어나 불멸의 영광으로 영원한 빛 가운데 살게 되며, 슬픔이나 고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한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sup>2</sup>







조셉 왓슨 영(1828~1873)은 1853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브리검 영의 조카이다.

“늦은 밤에 오직 몇 사람의 증인만 쓸쓸히  
지켜보는 가운데, 고요하고 깊은 바닷속에  
한 사람을 맡기는 것을 보노라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 승선한 사람들 가운데  
동료 승무원 외에는 그를 위해 울어 줄  
사람이나 친척은 아무도 없었다. 인간의 본성  
중 가장 강력한 소망들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시온으로 가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가슴이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로  
불타올랐던 그 젊은이는 굶주린 파도에 자기  
육신을 맡기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죽지는 않았다. 그가 얻은 평화는 자신의  
하나님과 더불어 이룩한 것이었으며, 또 그에게는 의로운  
자들이 아침에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완전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sup>3</sup>



오른쪽: 브리검  
영 회장. 위: 조셉  
왓슨 영.

브리검 영(1801~1877) 회장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죽음을 그렇게 일컫습니다.  
필멸의 육체를 가진 존재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빈  
상태로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 골짜기가



얼마나 캄캄할지, 이 길이 얼마나 불가사의할지.

……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이 길을 혼자

여행해야 합니다. 나의 친구, 형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태를

볼 수 있다면, 그것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어둡고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어서 그 길을 건넌을 때 우리는

뒤돌아보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슬픔과 비통과

애도와 비탄과 비참함과 고통과 빈민과 실망의 상태를 벗어나,

육체 없이도 충분히 인생을 만끽할 수 있는 존재의 상태로 바뀐

지금이야말로 나의 존재 전반에 걸쳐 가장 좋은 때라 아니할 수

없다.’”<sup>4</sup>



설명: 브리검 영 존 윌러드 블라운스, 윌버 왓슨 영의 사진. 교회 역사 도서관 제공. 맨 존스의 사진 © R: 존 웨일러, 에이 웨스턴우드,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웨일스 출신인 **댄 존스(1811~1862)**는 윌리엄스 부인 및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 1849년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트레가론(웨일스) 근방의 이니지반트 출신인 윌리엄스 부인은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었고 머지않아 세상을 뜰 징후를 보였다. …… 그녀는 여태껏 받았던 것 중 가장 큰 영예는 하나님 아들의 참된 교회에 속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지금 믿는 이 종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된다는 말을 했다. …… 그녀는 아들들에게 자신과 함께 더 나은 부활을 얻도록 죽을 때까지 충실하라고 엄숙하게 권고했다. …… 그녀는 밤새 의식이 또렷했으며, 다음날 새벽 4시 15분에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sup>5</sup>



오른쪽: 존 테일러 회장. 위: 댄 존스.

존 테일러(1808~1887) 회장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 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계시된 진리의 원리에 따라 생활한 사람들이, 특히 생의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참고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우리가 머지 않아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 있는 불멸의 존재로 나아와 변함없는 우정을 지닌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다시는 죽음을 겪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도록 주신 일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는 얼마나 고무적인 일일까요!”<sup>6</sup>







앤드류 켄슨(1850~1941)은 1866년에 앤드류 에이치 스콧 마차 부대와 함께 네브래스카에서 유타로 이주한 덴마크 출신 이민자이다.

“[동료 여행자]들의 육신이 어머니와 같은 대지의 광야에 묻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거의 모두 흐느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묻고, 그들의 안식처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이, 친구와 친척들이 곧바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떠나야 한다는 현실을 생각하니 정말 슬프고 괴롭기 그지 없었다.

……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팔을 불 때 그들의 무덤을 찾게 될 것이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시온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들의 육신을 내려놓았다. 주님은 그들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본향으로 부르셨다. 그들은 살아 생전에 시온을 볼 수 없었지만, 앞으로 영광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다가 죽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여! 축복을 받으라!”<sup>7</sup>

윌포드 우드럽(1807~1898) 회장



오른쪽: 윌포드 우드럽 회장. 위: 앤드류 켄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주제의 하나가 되겠지만, 복음에 접하고 부활의 원리를 알게 되는 순간 죽음으로 인한 우울함과 슬픔과 고통은 대부분 없어지게 됩니다. …… 죽은 자의 부활은 깨우침을 얻은 인간의 정신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며, 그는 자신의 영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후기 성도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으며, 이 문제에 관해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 주셨으며,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생명과 불멸을 드러냅니다.”<sup>8</sup>



읽기 쉽도록 철자, 구두법을 현대 어법에 맞게 수정함.

주

1. Robert Aveson, “Leaves from the Journal of a Boy

Emigrant,” *Deseret News*, Mar. 12, 1921, 4:7; lds.org/churchhistory/library/pioneercompanysearch에서도 볼 수 있음.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2쪽.

3. Joseph W. Young, *Journal*, Mar. 6, 1853,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Utah; mormonmigration.lib.byu.edu에서도 볼 수 있음.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273쪽.

5. “A Letter from Capt. D. Jones to the Editor of *Udorn Seion*,” Ronald D. Dennis, *The Call of Zion: The Story*



윌리엄 드라이버(1837~1920)는 1866년 영국에서 미국 뉴욕으로 건너온 개척자이다.

“사랑하는 윌리는 밤새 몹시 앓았지만, 아침 7시 30분이 되었을 때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졌다. 하나님께서 윌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기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윌리는 영국 서리 윈즈워스 세인트 앤즈 힐에서 부서진 포터 씨의 손수레 때문에 죽게 되었다. 아! 나는 얼마나 이 큰 고통에서 슬퍼했던가! 오 주여! 당신의 손으로 제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당신의 권능으로 도와주소서. 제가 충실하고 고결하게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윌리를 그의 누나인

엘리자베스 메리앤과 함께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또 의로운 자들이 부활할 때 제가 거기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sup>9</sup>



오른쪽: 로렌조 스노우 회장. 위: 윌리엄 드라이버.



로렌조 스노우(1814~1901) 회장

“다음 세상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우며,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육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멋진 일은 없습니다.”<sup>10</sup> ■

of the First Welsh Mormon Emigration, vol. 2(1987), 164-65; mormonmigration.lib.byu.edu에서도 볼 수 있음.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2001), 50~51쪽.

7. Andrew Jenson, Journal, Aug. 20, 1866, in *Journal Histor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Oct. 8, 1866,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Utah, 6; lds.org/churchhistory/library/pioneercompanysearch에서도 볼 수 있음.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 82쪽.

9. Frank Driver Reeve, ed., *London to Salt Lake City in 1866: The Diary of William Driver*(1942), 42;

mormonmigration.lib.byu.edu에서도 볼 수 있음.

10. Lorenzo Snow, Conference Report, Oct. 1900, 63.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성역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은 그분을  
답으려고 할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교리와 성약 107:23) 중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하는 봉사 중 최고의 것은 그분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그분이 언젠가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마태복음 22:42)

저는 정부 및 다양한 종파의 지도자들과 만날 때 종종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훌륭한 교사였지요.” 하고 대답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선지자였습니다.”라고 합니다. 혹은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처럼 회복된 복음 진리를 가진 사람은 소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기독교인을 자칭하는 이들 중에서도 소수입니다.

니파이는 오래 전에 오늘날의 상황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를 본즉,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창녀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적더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어린 양의 교회 또한 온 지면 위에 있음을 보았나니, 내가 본 큰 창녀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지면 위에서 그들의 다스림이 작더라. ....”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흠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움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니파이전서 14:12, 14)

그 의로움, 권능,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순종, 감사, 사랑에서 비롯되며, 참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이기도 합니다.

다소 짧았던 필멸의 기간 동안, 구주는 무엇보다도 귀중한 두 가지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모세서 1:39)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5).

그분의 첫째 목표는 우리에게 속죄라고 알려진 그것입니다. 이것은 필멸의 기간 동안







그분께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고대 미 대륙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명을 밝히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함이라”(제3니파이 27:13~14)

계속되는 설교에서 그분은 두 번째 목표를 밝히시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나니, ……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것, 곧 그것을 너희가 행하여야 할 것임이니라.”(제3니파이 27:21)

저는 그분의 첫째 목표를 그분의 사명이라고 정의하고 두번째 목표는 성역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주님 생애의 양 축을 이루는 그분의 사명과 성역을 함께 살펴봅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속죄

그분의 사명은 속죄였습니다. 그 사명은 오로지 그분께만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필멸의 어머니와 불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요한복음 10:14~18 참조)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결과는 무한하며 영원했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쏘는 듯한 고통을 없애시고 죽음의 슬픔을 한시적인 것으로 만드셨습니다.(고린도전서 15:54~55 참조) 속죄에 관한 그분의 책임은 창조와 타락이 있기 훨씬 전부터 알려졌습니다. 속죄는 모든 인류에게 부활과 불멸을 안겨 줄 뿐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조건에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리하여 그분의 속죄는 우리가 그분과, 또 우리 가족과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희망을 영생,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교리와 성약 14:7 참조)라고 간주합니다.

그 누구도 속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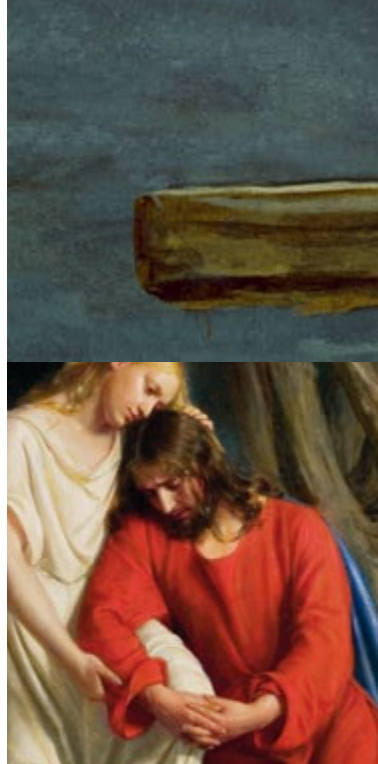
어느 누구도, 설사 엄청난 부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은 커녕 단 하나의 영혼도 구하지 못합니다.(마태복음 19:24~26 참조) 그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도록 요구되거나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히브리서 10:10) 그 일을 하셨습니다.

속죄는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지만, 구약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은 속죄의 중요성을 수시로 예고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모세서 5:7)으로 희생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피를 흘림으로써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레위기 17:11)는 경전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은 장기에 피가 통하지 못할 때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압니다. 다리에 피가 돌지 않으면 괴저(혈액 공급이 되지 않거나 세균 때문에 비교적 큰 덩어리의 조직이 죽는 현상-웁긴이)가 일어납니다. 뇌에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대동맥에 피가 원활히 돌지 않으면 심장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후손은 동물이 피를 흘릴 때마다 생명이 다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바치는 의식을 위해 아무 동물이나 쓰지 않았습니다. 제물로 바칠 동물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이어야 했습니다.(예: 출애굽기 12:5 참조) 이런 요건은 또한 하나님의 흠 없는 양이 치를 궁극적인 희생을 상징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지며,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 우 인류를 위한 구주의

피 흘리심은 속죄의 고통을 마지막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맛본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겿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니라”(모세서 5:8) 그때부터 절정의 시기까지, 동물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치를 궁극적인 속죄의 모형이자 암시가 되었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졌을 때, 그 위대한 마지막 희생으로 모세 율법이 완성되었으며(엘마서 34:13~14 참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레위기 17:11)이라고 가르치며 동물을 제물로 바치던 관습을 그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대에 제물을 바치던 원리가 어떻게 속죄로 대체되었으며, 또 어떻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상징적으로 기념하게 되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생명, 육체, 피에 관한 다음 성구에 다시 한 번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요한복음 6:53~54)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모든 인류, 곧 원하는 자는 모두 구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주의 피 흘리심은 속죄의 고통을 마지막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맛본 십자가에서가 아니라 겿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를 무겁게 짊어지셨습니다.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시며, 그분은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9:18 참조) 그 속죄의 고통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속죄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sup>1</sup>

그 권세와 더불어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분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본보기

지상 생활에서 주님의 두 번째 영원한 목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필멸의 성역에는 그분의 모범적인 삶과 그분의 가르침, 비유, 설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녀들을 위해 행하신 기적, 사랑이 가득한 친절,



오래 참음(니파이전서 19:9 참조)도 있습니다. 연민에 넘쳐 신권 권세를 사용하신 일도 있습니다. 죄를 정하시고(로마서 8:3 참조) 환전하는 상인들의 상을 옴으셨을 때(마태복음 21:12 참조) 보이셨던 마땅한 분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 고통도 있습니다.

그분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았으며(모사이야서 15:5), 한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또 다른 제자는 그분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요한복음 18:2~3, 25~27 참조)

주님께서 성역을 베푸시며 놀라운 일들을 하셨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그분만이 아니었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사람들의 수는 끝이 없습니다. 그분이 권세를 부여하신 종들 가운데 선지자와 사도들, 그리고 다른 여러 사람이 그분과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위해 박해를 감내했습니다.(마태복음 5:10; 제3니파이 12:10 참조)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도 주님의 모범을 따르려고 끔찍한 대가를 감수하면서도 성실하게 분투하는 형제 자매들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하며, 주님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범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호소는 아주 명백합니다.

-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또한 제3니파이 12:48 참조)
-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9)
-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5; 또한 요한복음 14:6 참조)

이 구절들을 비롯하여 다른 유사한 성구들은 단지 제안으로만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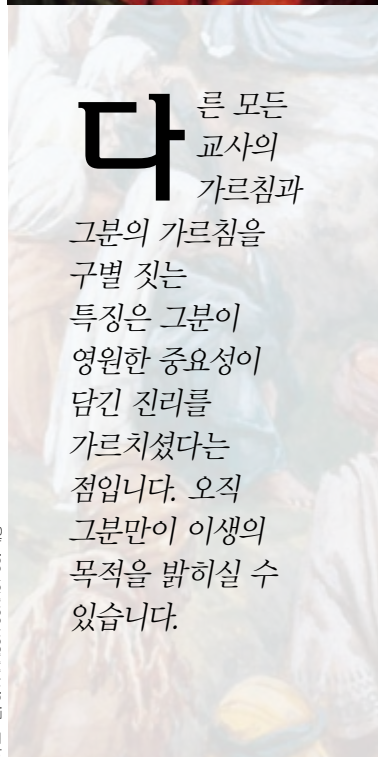
신성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따르려는 소망을 키우기 위해 그분의 생애에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사랑

그분의 생애를 이루는 특징 가운데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사랑이라는 성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그분의 동정심, 친절, 자애, 헌신, 용서, 자비, 정의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사랑하셨습니다.(요한복음 19:25~27 참조) 가족과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다.(요한복음 13:1; 데살로니가후서 2:16 참조)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마태복음 9:2; 교리와 성약 24:2 참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그리고는 그분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한복음 15:10; 또한 교리와 성약 95:12; 124:87 참조)

구주의 사랑을 달리 표현해 주는 것은 그분의 봉사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섬기고, 또 함께 지내며 일하는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신명기 10:12; 또한 11:13; 여호수아 22:5; 교리와 성약 20:31; 59:5 참조) 또 우리는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갈라디아서 5:13; 모사이야서 4:15~16 참조) 우리는 가족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묶는



신성수술, 제임스 티스; 삽화: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공의 확대 그림, 헤인리히 호르만, C. HARRISON CONROY, CO. 제곱

## 다 른 모든 교사의 가르침과

그분의 가르침을 구별 짓는 특징은 그분이 영원한 중요성이 담긴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생의 목적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끈끈한 사랑은 자녀가 부모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시기에 베풀 뒷바라지에서 생겨납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는 효성스러운 자녀가 나이 든 부모를 섬김으로써, 자신이 받았던 사랑을 보답할 기회를 갖습니다.

### 의식

구주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 주는 두 번째 면은 성스러운 의식을 강조하셨다는 점입니다. 지상 성역 동안 그분은 구원 의식의 중요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요단 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요한조차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마태복음 3:15, 강조체 추가). 그 의식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요한이 보여 준 모범 역시 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주님은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상징성을 설명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성스러운 상징물을 집행해 주셨습니다.(마태복음 26:26~28; 마가복음 14:22~24; 누가복음 24:30 참조)

하나님 아버지 역시 의식에 관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 피 곧 나의 독생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 하니,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죄에서 성결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곧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모세서 6:59).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성역에서는 더 높은 승영의 의식을 계시해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24:40~42) 그분은 거룩한 성전에서 거행되는 이런 의식들을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날 올바르게 준비한 사람들은 씻음과 기름부음, 앤다우먼트 의식을 받습니다.(교리와 성약 105:12, 18, 33; 110:9; 124:39 참조) 성전에서 개인은 남편이나 아내, 조상과 후손에게 인봉됩니다.(교리와 성약 132:19 참조) 우리 주님은 율법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교리와 성약 132:18 참조) 의식을 강조하신 점은 우리에게 보이신 모범 중 중요한 부분입니다.

### 기도

주님의 모범적인 성역의 세 번째 면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으며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신의 권능을



통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마태복음 6:9~13; 제3니파이 13:9~13; 조성, 마태복음 6:14)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주께서 하신 위대한 중보기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 기도에서 주님은 아들로서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대신해 아버지와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이며 연민 어린 기도의 본보기입니다.

### 지식

주님의 모범에서 네 번째 면은 신성한 지식을 활용하신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많은 비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위대한 교사로 여깁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진정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공학, 수학, 과학을 잘 가르치셨습니까?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창조자(모세서 1:33)로서 그분은 물론 그러실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경전의 저자로서 문학 창작을 아주 잘 가르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교사의 가르침과 그분의 가르침을 구별 짓는 특징은 그분이 영원한 중요성이 담긴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점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생의 목적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전세에 관해, 또 내세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은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며 듣던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분에 대한 세 가지 증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 침례 요한
-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들
-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요한복음 5:33~37 참조)

예수님은 곧 이어 네 번째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39).

이 구절에서 “생각하고”라는 표현이 조금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예수님이 전하시려 했던 의미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경전 속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경전만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경전에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

즉 로고스(Logos)입니다. 영생의 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한복음 1:1; 또한 니파이후서 31:20; 32:3 참조)라고 한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에 회의론자들이 완고한 입장을 취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요한복음 5:40).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하늘 지식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택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분의 신성한 율법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서 오는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 인내

주님 성역의 다섯 번째 면은 끝까지 견디신 의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임무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어지는 고통을 이기고 끝까지 견디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였습니다.

### 우리 삶에 적용함

주님 성역의 이 다섯 가지 면은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흠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고 할 때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크고 첫째 되는 다음 계명의 논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마가복음 12:30). 달리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후 자신의 대답을 주님께서 정하신 다음 기준과 비교해 보십시오.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필멸의  
 성역에는  
 그분의 모범적인  
 삶과 그분의  
 가르침, 비유,  
 설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민에  
 넘쳐 신권 권세를  
 사용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마태복음 10:37).

가족과 친구에 대한 사랑은 귀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내릴 때 더욱더 깊어집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그분 덕분에 현세와 내세에서 더 큰 의미가 생깁니다. 사랑이 깃든 모든 관계는 그분 안에서 더욱 고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고귀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깨달음과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의식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봉사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부모는 각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의식을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들은 그들이 봉사하는 각 가족들이 앞으로 어떤 적절한 의식을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에 관한 구주의 모범은 개인 기도 및 가족 기도, 그리고 교회에서 주어진 우리의 임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로서 자리잡아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면 커다란 영적인 힘과 자신감이 생깁니다.(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우리는 주님 편에 서고 싶어합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 말하[는]”(야곱서 4:13) 지식은 우리가 참된 원리와 교리에 따라 행동하게 합니다. 이런 지식은 우리의 행동을 한 차원 높여 줍니다. 취향과 감정에 치우치는 행동이 이성과 정의에 입각한 행동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겠다는 결심은 봉사하라는 부름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목표를 섬없이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길을 벗어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질병, 장애, 사망이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의 영원한 가족 관계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변화를 가져다주는 주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명과 성역은 현재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각자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

1998년 8월 18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에서 발췌.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9쪽.



# 부활절 주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애 마지막 주에 겟세마네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며,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속죄를 이루셨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회의에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자신의 계획을 발표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기뻐서 소리쳤다.(욥기 38:7; 아브라함서 3:27 참조)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 없는 삶을 사셨다. 그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천년 때 권능과 영광 속에 다시 오셔서 지상에 거하실 것이며,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되실 것이다.

다음은 구주의 생애 마지막 주를 담은 성경 비디오에서 발췌한 사진이다. 각 사진 아래에 적힌 경전 구절을 읽어 본다. 전체 사진들을 연대표로 보려면 Bible Dictionary(영어 성경 사전)나 경전 안내서에 나오는 사복음서 도표를 참조한다. 성경 비디오는 [biblevideos.lds.org](http://biblevideos.lds.org)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미지 © FR





유월절을 5일 앞두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사람들은 그분을 왕으로서 인정하여 “호산나”를 외쳤고, 옷과 종려나무 잎을 당나귀 앞에 깔았다.(마태복음 21:1~11; 마가복음 11:1~11; 스가랴 9:9 참조)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예수님은 두 번이나 성전을 정리하셨다. 예수님은 환전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마태복음 21:13) 그때 수많은 앞을 못보는 이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으며, 주님은 그들을 고쳐 주셨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의 기적을 목전에서 보고서도 화를 내며 그분을 없앨 계락을 짰다.(마태복음 21:12~17; 마가복음 11:15~19 참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타락에서 구속하고자 지상에 내려오셨다.(니파이전서 11:16~22, 26~33; 앨마서 7:10~13 참조)





구주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으며,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 고난은 그분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교리와 성약 19:18) 했다. 곧이어 가롯 유다와 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고,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려둔 채 도망쳤다.(마태복음 26:36~56; 마가복음 14:32~50; 누가복음 22:39~53 참조)



구주께서는 그 주 내내 과부의 헌금에 관한 가르침을 포함하여 길이 기억될 설교를 남기셨다.(마가복음 12:41~44; 누가복음 21:1~4 참조)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이 떠난 후에 보혜사, 즉 성신을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들에게 약속하셨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찬을 취함으로써 자신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새벽녘에 중보기도를 드리시면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마태복음 26:17~30; 마가복음 14:12~26; 누가복음 22:14~32; 요한복음 13~17장 참조)







부당한 재판과 가혹한 고문을 거친 후,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이루셨다.(앨마서 34:14~15 참조) 해가 저물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분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싼 뒤, 무덤에 안치했다.(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5장; 요한복음 19장 참조)



일요일 아침이 밝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충실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아갔다. 여인들은 무덤가의 돌이 굴러져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으며, 두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 부활하신 구주는 육체적인 사망을 극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참조). ■



# 침례를 준비하는 아이를

## 돕는 방법

제시카 라슨, 머리사 위드슨  
교회 잡지

**유**년시절은 즐거운 첫 경험들이 가득한 시기이다.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는 일, 학교에 가는 일,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일은 어린이의 삶을 형성하는 신나는 모험들이다. 그러한 발견의 길을 걷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른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교회에서도, 성인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교리와 성약 68:25 참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처음으로 맺는 성약인 어린이의 침례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청소년을 가르치는 것은 이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가정에 먼저 책임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교회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가르쳤다.<sup>1</sup>

침례 및 확인이라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위해 자녀를 잘 준비시킨 부모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우리는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로리는 “아이가 만으로 일곱 살이 되는 해는 경사스러운 때이죠.”라고 말한다. 로리 부부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침례에 대해 가르쳤다. 아이들이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이 가족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매달 가정의 밤에서 성약이나 예수님의 모범과 같이 침례와 관련된 여러 주제를 다루었다.

아이들의 여덟 번째 생일에는 정말 특별한 공과들을 했다고 한다. 로리는 아이들이 자녀 명명과 축복을 받았을 때 입었던 옷을 보여 주면서 그 의식이 집행된 날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로리는 이렇게 말한다. “성전 성약이 주는 축복에 대해 집중하기에 안성맞춤인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침례를 받겠다는 선택이 성전 축복을 받을 준비를 시작하는 첫 걸음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칩니다.”



### 우리에게 침례는 가족 행사입니다

네 아이를 둔 모니카는 가능하다면, 조금 더 큰 아이에게 동생의 침례 준비를 돕게 하라고 추천한다. “십 대인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간증과 경험담을 들려주면 더욱 힘이 실리죠.” 로리는 침례를 준비하는 자녀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부탁하기도 한다고 덧붙인다.

### 우리는 침례를 선교 사업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다니엘은 여덟 살이 된 딸 엘리슨이 비회원 친구들을



침례식에 초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엘리슨의 침례식에 학교와 이웃 친구들을 초대했다. 그리고 친구들이 침례식에 올 때 각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다. 침례식이 끝나자 엘리슨은 새로 받은 경전을 펼쳐 친구들이 알려 준 성구를 찾아서 밑줄을 친 후 경전 여백에 친구들의 이름을 적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이가 침례를 받는 날이니 당연히 저희도 그날 열심히 참여했죠. 하지만 우리는 엘리슨에게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을 줌으로써, 자신이 느낀

것을 친구들에게 들려 줄 수 있게 했지요. 제 자녀가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보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 우리는 감독님과 접견할 연습을 합니다

자녀가 침례 받을 나이가 되자 김벌리는 자신이 여덟 살 때 침례 접견을 하러 감독실에 갔던 일이 생각났다. 김벌리는 그때 굉장히 긴장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이 허둥대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없도록 준비시킨다. 김벌리 부부는 자녀에게 감독님과 접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그 접견 상황과 비슷한 분위기에서 침례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런 접견을 통해 아이는 접견 절차에 더 익숙해질 뿐 아니라 침례 성약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

### 우리에게는 훌륭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자녀가 침례 및 확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과도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바로 지적했다. 하지만 수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을 설명하면서 “철저히”나 “지속적인”과 같은 단어를 언급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김벌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아이에게 침례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단계이고, 뜻 깊은 일임을 확실히 이해하게 했어요. ‘초등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겠지.’ 하고 바라기만 하는 대신 아이들을 준비시켜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점을 늘 기억했지요.”

사랑하는 자녀가 침례 및 확인을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멋진 기회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처음으로 성약을 맺게 되는 이 경험이 미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

다음 두 쪽에는 침례 및 확인에 관해 어린이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에 대한 답변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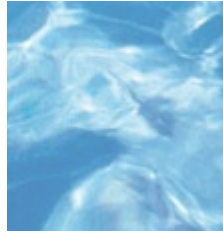
주

1. 보이드 케이 패커, “어린이들을 가르치십시오”, 리야호나, 2000년 5월호, 16쪽.



## 침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머리사 위드슨  
교회 잡지



### 누가 저에게 침례를 주시나요?

여러분에게 침례 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능인 신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침례를 받고자 하셨을 때, 신권을 지닌 침례 요한에게로 가셨습니다.(마태복음 3:13 참조)

여러분에게 침례를 주실 분은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께 허락을 받을 것입니다.



### 침례를 받으려면 물 속에 잠겨야 하나요?

예수님은 침수로써 침례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곧 나오셨다는 것을 뜻합니다.(마태복음 3:16 참조)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침례 받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옛 생활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 침례 받을 때 저는 어떤 약속을 하게 되나요?

침례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은 서로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성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성약은 매주 일요일에 하는 성찬 기도문에도 나옵니다.(교리와 성약 20:77~79 참조) 여러분은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
-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삶에서 그분의 일을 우선으로 삼고, 세상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는 성신이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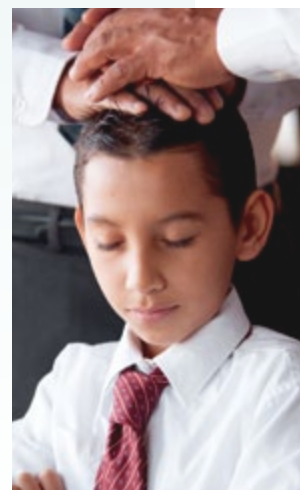


### 성신은 누구입니까?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물로 받은 침례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남성이 성신을 받으라는 축복을 주기 전까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요한복음 3:5 참조)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성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무엇이 참된지를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위험을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고, 여러분이 의로운 선택을 한다면, 언제나 성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왜 여덟 살 이상인 사람만 침례를 받을 수 있나요?

주님은 어린이들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을 충분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침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이 나이를 여덟 살로 정하고 있습니다.(모로나이사서 8:11~12; 교리와 성약 29:47; 68:27 참조)





자이로 마자가르디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성전으로 이끌려서

많은 선한 사람에게 성전은 단박에 가슴속을  
파고드는 어떤 느낌을 줍니다.

**칠** 십인 제이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받기 전에 아내와 저는  
브라질 캄피나스 성전 및 상파울루 성전에서 다년간  
봉사했습니다. 저는 그 두 성전에서 종종 성전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이 성전에 이끌려서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와 성전에  
대해 묻는 광경을 보며 놀라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는 적절한 준비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런 뒤 성전의 목적을  
설명하고, 몇 가지 기본적인 복음 교리를 알려 주면서  
선교사들을 만나 보라고 권합니다. 많은 선한 사람에게 성전은  
그 자체로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성전은 단박에 가슴속을  
파고드는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내 엘리자베스와 저는 그러한 느낌이 끼치는 힘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약 40년 전, 동료이자 교회  
회원인 절친한 친구 하나가 일상적인 대화에서 복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몇 번 우리 집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을 좋아했던 우리는 토론에 응하긴  
했지만, 사실 가르치는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978년 10월, 제 동료가 우리를 비롯해 몇몇  
친구들을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일반 공개에 초대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비로 버스 몇 대를 빌려서 친구들이 함께 80킬로미터나 떨어진 성전에 갈 수 있게 했습니다.

아내는 침례반에 들어가자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뭔가를 느꼈는데, 나중에 우리는 그것이 성신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가슴속에 큰 기쁨이 깃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이 교회가 참되며, 이 교회가말로 자신이 들어오고 싶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공개 마지막에 우리는 인봉실로 안내되어 영원한 가족에 관한 교리를 배웠는데, 그때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교리에 감동했습니다. 저는 사회에서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으나 오랫동안 영혼에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랐으나 저는 그것이 가족과 관련된 것임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인봉실에서 제 머리와 가슴속에 이해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선교사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선교사의 메시지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장로들은 그 진리에 대해 열심히 기도해 보도록 권유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간증 없이는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다짐을 못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 그분에게서 오는 확신을 얻게 해 달라고 간청하기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그분이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제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소망을 그분께 말씀드렸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옳은 길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응답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한 주 뒤, 우리를 성전 일반 공개에 초대했던 친구가 주일학교 시간에 제 뒤에 앉았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제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한 내용은 제가 기도로 알고자 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시 저는 완고하고 무감각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말을 끝낸 후 우리 부부에게 침례를 권했습니다. 우리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1978년 10월 31일, 상파울루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던 그날 우리는 침례와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의 두 번째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1년 후에는 두 아들과 함께 성전에서 가족 인봉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은 아름답고도 길이 기억될 만한 일입니다. 수년간 정기적으로 성전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경험들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28년이 지난 후, 우리 부부는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 앞에 다시 한 번 섰습니다. 제가 성전 회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복도를 걸어가며, 개종하는 계기가 되었던 그 특별한 느낌을 새롭게 떠올리면서 감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전은 계속해서 우리 부부에게 큰 행복을 선사합니다. 젊은 부부가 성전에 와서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큰 희망을 느낍니다.

전 세계에는 복음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30여 년 전에 느낀 것과 비슷한 갈증이 있습니다.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의식에는 그 갈증을 해소하고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



## 뭔가 비행기에 문제가 생겼다

**어**느 저녁, 승객으로 꽉 찬 비행기를 유도로에서 활주로로 몰고가는 동안 나는 기체 조종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영적인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유도로를 벗어났을 때 기체를 360도로 꺾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다.

‘승객들이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지금 이륙해야 할까? 아니면 다시 게이트로 돌아가야 할까?’ 고민이 되었다.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면 시간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 분명했다. 유도로는 일방통행이기에, 운행 방향을 바꿔 비행기를 유도도로 돌릴 공간을 마련하려면 관제탑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 후 정비사들이 기체를 점검하기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지연은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편으로 갈아타야 하는 승객들과 항공사에 문제가 될 것이 분명했다. 또, 내 강한 느낌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비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의문이었다.

비행기 기장으로서는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인 나는 내 느낌대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게이트에 도착한 후, 나는 정비사를 불러서 기체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만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비사는 문제가 있다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냥 유도로가 젓어서 그럴 거예요.”라고 말했다. “기체가 아스팔트 위에서 미끄러져서 그렇게 느끼신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그는 앞바퀴 쪽 조종 장치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점검을 끝낸 정비사는 시험 운행을 하기 위해 승객들에게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30분 후, 그는 매우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시험 운행 동안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간헐적으로 들었다고 했다. 게이트로 돌아가기 위해 방향을 돌리면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비행기가 제동되지 않더니 급기야 거의 유도로에서 이탈할 뻔한 것이다.

자세히 점검한 결과, 그 전날 밤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가 그냥 이륙했다라면, 고장난 브레이크 때문에 착륙할 때 비행기를 멈추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세 시간 후에 다른 비행기를 받아서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모셨다.

그때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던 것은 정말 다행이었다. 나는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에 따라 오는 영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음을 안다. ■

크레이그 윌리, 미국 유타

**또**, 내 강한 느낌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비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의문이었다.



## 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어**느 날,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님의 연차 대회 말씀을 읽고 있었다. 이미 들었고, 읽어 보기도 한 말씀이었지만, 한 부분에 마음이 끌렸는데,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았다.

몇 시간 후, 친구와 자취를 하는 아들이 잠시 집에 들렀다. 아들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고, 대학교 몇 학기를 마친 상태였다. 아들은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추구해 나가야 할지, 또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할지 자신 없어했다. 좌절감을 느낀데다가 현재로서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아이는 학업을 접고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다.

아들은 한 친구에게서 카리브 해나 바하마 제도에서 몇 달간 즐기면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들은 그 기대로 무척 들떠 있었다. 자유롭게 즐기는 그런 시간이 젊은이에게 얼마나 구미가 당기는 일인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때 스코트 장로님의 인상 깊은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 나는 엔사인을 집어 들어 아들에게 이 내용을 읽어 주었다. “여러분은 거룩한 목적으로 이곳 지상에 계십니다. 그것은 끝없이 즐기거나, 계속해서 쾌락을 좇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험받고 자신을 증명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갖고 계신,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인내라는 조절력이 요구됩니다.”(“인생에서 기쁨을 찾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25쪽)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엔사인을 들고 가서 그 말씀 전체를 다 읽었다. 후에 아들은 섬으로 모험을 떠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 경찰학교에 입학했고, 그러면서 아내가 될 사람도 만나게 되었다. 둘은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현재 훌륭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 2010년에 아들은 학사 학위를 받았고, 진정으로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다.”

아들이 제의받은 모험 가득한 여행은 멋진 경험일지는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일을 회상할 때마다 내 마음은

영으로 감동을 받는다.

나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 감사드리며, 내가 아들을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떠올리도록 영감을 받은 것에 감사를 느낀다. 또한 아들이 주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영의 영향력을 받아들여서 기쁘다. 나는 우리가 구주와 그분 종들의 가르침을 듣고 따를 때 많은 축복과 따사로운 자비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안다.

■ 캐런 록우드, 미국 아이다호



**아**들이 한 친구에게서 카리브 해나 바하마 제도에서 몇 달간 즐기면서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때,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 전화가 끊기고

**우** 리 부부는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시에서 1997년 3월에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다.

나는 교회 교리를 공부하면서 많은 궁금증을 풀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비롯해 구원의 계획에 관해 배우는 것이 재미있었다.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웠다.

침례 받은 지 1년이 지났을 때, 선교부 회장님은 우리에게 성전에 갈 준비를 하도록 권하셨다. 우리는

준비의 일환으로, 가족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 일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께 남편 쪽 가계의 조상 목록을 보내 주실 수 있는지를 여쭙었다.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시며, 죽은 자를 위한 침례는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고, 물몬들이 만들어 낸 것일 뿐이라고 하셨다. 나는 그 교리를 뒷받침할 성구도 잘 알지 못했기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어떻게 대답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끊겼다. 왜 전화가 끊겼는지를

몰라 잠시 어리둥절해했지만,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서 침실로 갔다. 신약전서를 손에 쥔 채 무릎을 꿇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간청했다.

기도를 끝낸 후에 성경을 펼쳤다. 마치 누군가가 내가 펼친 쪽에서 29절을 읽으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펼쳤는데, 그 장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그 순간에 내 기도 응답하셨다는 사실이 감동스러웠고, 또 놀라웠다. 정말 놀라운 느낌이었다.

이 일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겨 있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시어머니는 왜 전화가 꺼졌는지 물어보셨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는 성경을 펴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을 읽어 보시라고 말씀드렸다.

며칠 후, 돌아가신 친족들의 목록이 내 책상 위에 놓이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그 구절을 읽으셨으며, 이제는 구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죽은 자를 위한 침례 교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을 믿으신다.

하나님은 이 구속 사업을 행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다. 나는 그것이 진실임을 안다. ■

세다 멜릭세타이언, 아르메니아



**시** 어머니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는 건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니며, 물몬들이 만들어 낸 것일 뿐이라고 하셨다.

## 이런 잡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죠?

**미** 국 네바다에서 알래스카로 가족 여행을 하던 차에 나는 건너편에 앉은, 키가 크고 매력적이며 다정다감한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가 내 행선지를 물었을 때 나는 알래스카 주노로 아들네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답했다. 그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왔다고 했다. 그녀는 20년 동안 함께 살다가 사별했던 남편의 추도식을 위해 친척들을 방문하러 주노에 가는 길이라며, 감정에 북받쳐서 말했다. 그 남편은 최근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건너편을 바라보는데, 내가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또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성전의 성전 봉사자라는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그때 갑자기 상호부조회 시간에 받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 인용문이 초인종 소리처럼 뚜렷하게 떠올랐다.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을 때 자매들이 “낮선 타인을 구제하는 일에 술선수범할 것이며, …… 낙담하고 상한 마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고아의 눈물을 닦아 주고, 미망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리라는 것을 확신”(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52쪽)한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 번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을 잃고 낙담에 빠진 그 낮선 사람, 상처를 입은 여성이 보였다. 그리고 그날



**나** 는 어떻게 하면 최근에 남편과 사별한 이 여성의 마음을 북돋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아침에 2011년 7월호 엔사인을 읽은 것이 떠올랐다. 거기에는 그녀에게 격려와 위안이 될 만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기사가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잡지를 폈고, 그 기사를 찾아 그녀에게 읽어 보게 했다. 그녀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한 줄 한 줄을 정말 열심히 읽는 그녀의 모습에 나는 다소 놀라움을 느꼈다. 그 기사를 다 읽고 나서는 다른 기사도 읽기 시작했다.

기사에서 감동을 받은 게 틀림없었다. 그녀는 엔사인을 꼭 끌어안은 채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런 잡지를 어디서 구할 수 있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냥 가지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계속해서 더 읽어나갔다.

주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손을 잡고 내 눈을 응시하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나는 그 경험에서 훌륭한 교훈을 배웠다. 우리 주변에는 상한 마음을 지닌 낮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따뜻한 격려의 말이 필요하며, 후기 성도인 우리가 아는 것을 그들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

세런 래더, 미국 네바다



가끔, 더 좋은 무언가를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매튜 디 플리튼  
교회 잡지

어느 날, 헝가리 세계드에 사는 스쿼 줄탄은 자신의 카약 코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독일에서 열리는 시합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기 때문이다.

스쿼는 이렇게 설명한다. “시합 날짜가 제 침례식 날짜와 같아서 거절했어요.”

스쿼는 17세 때 카약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카약은 헝가리에서 인기가 많은 운동이며, 매우 뛰어난 선수인 스쿼는 프로 선수가 되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스쿼는 경기 출전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곧 카약을 그만둘 예정이었다. 더 좋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카약은 스쿼에게 여러모로 유익했다. 다년간 코치와 함께 훈련하면서 자기 절제와 순종, 근면을 익혔으며 경기에 지장을 줄 중독성 약품과 습관을 피하는 법도 배웠다. 그런 생활은 쉽지 않았으며 외롭기도 했다. 또 프로 선수가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 프로 선수들은 하루에 약 12시간을 연습하고, 일요일에도 경기에 출전한다.

“카약에 거의 모든 시간을 썼죠. 광적으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을 제쳐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스쿼는 복음과 카약 모두에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04년, 스쿼는 카약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교사들이 스쿼의 어머니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 해 초였다. 스쿼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지못해서였지만, 그럼에도 침례식에 와 달라는 엄마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교회 건물에 들어섰을 때 스쿼는 무언가를 느꼈고, 그 느낌은 스쿼의 마음을 움직였다. 스쿼는 선교사들을 만나 보기로 했다. 어느 면에서는 그들과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선교사들이 평범한 사람들이면서도 높은 표준을 따른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미 높은 표준을 따르고 있었기에 스쿼는 금세 복음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2개월 후에는 침례를 받았다.

처음에는 카약을 계속 하고, 일요일 경기에만 출전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단 어떤 활동이나 진로를 정하면 그 분야에서 뛰어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때문에 스쿼는 카약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취미로 카약을 타 보려고도 했지만, 카약 코치는 경기에 나가지 않는 대신 사람들을 가르치고 원정 경기 출전 계획을 짜 달라는 부탁을 해 왔다. 스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카약이나 다른 활동에 전념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카약을 완전히 포기했고,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이 결혼할 때 내렸던 것과 같은 결정을 내리며 교회 봉사에 전념하기로 선택했다. 헌터 회장은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숙련된 음악가였다. 그는 저녁 시간에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러면서 복음 표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을 접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악기를 치워버렸으며, 가끔씩 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부를 때에만 연주를 했다.<sup>1</sup>

스쿼는 카약이 그림기도 했으나 카약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서 운동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승부욕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덮어 버릴 수도 있음을 알았다.



헝가리 세계드에 사는 스콧  
출탄은 복음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해 카약을  
포기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는 활동들에 이와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어떤 유익한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위태로워진다면, 아예 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

스콧은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제 삶이 되었어요. 활동적인 회원이 되고 싶다면 카약을 생업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죠. 카약은 취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 대신,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스콧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쏟는 똑같은 열정과 에너지로 복음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자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어했다.

그는 헝가리에서 봉사했으며, 현재는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우선순위로 삼는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길을 막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요.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 나쁜 것을 포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더 좋은 뭔가를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때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니까 계속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스콧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한다면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

주

1.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81 참조.



#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이 왜 나쁜지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 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고, 그분의 영과 함께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적절한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순결의 법을 출산하는 능력을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산 능력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사용하라고 명하신 이유 중 하나는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sup>1</sup>

친구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한 권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책자에는 순결의 법을 지키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성적 순결을 지킴으로써 성전에서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강한 결혼 관계를 이룩하고, 자녀를 영원하고 사랑스러운 가족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테두리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범할 때 뒤따르는 영적 피해와 정서적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또한 해로운 질병에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면 자신감을 얻고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으며 현재와 미래를 위해 훌륭한 선택을 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sup>2</sup>

## 성전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신성한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성전에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영원한 인봉을 하기 위해 우리는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살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릴 수 없는 끝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알로파 엠, 18세, 사모아

## 결혼과 가족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 성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합당하기 위해 성적으로 순결하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순결의 법을

따를 때, 우리는 미래에 튼튼한 결혼 관계와 가족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하려 하지만, 기도와 경전, 선한 친구를 통해 우리는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레스티 엠, 16세, 필리핀

## 부정적인 결과

순결의 법을 어기면, 많은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릅니다. 보건 시간에 배우는 몇 가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의 법을 어기면, 영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 버리고 맙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을 형편없게 여기게 됩니다. 저는 “순결: 어디까지 허용됩니까?”라는 몰론 메시지 비디오를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youth.lds.org]

매튜 티, 17세, 미국 유타

## 순수함과 존경

순결의 법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사람이 되고, 자신을 존중하게 되며, 타인에게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순결의 법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높은 표준을 지킨다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후회할 일을 피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법에 관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때, 이 지상 생활과 그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알야나 지, 19세, 필리핀

제시된 의견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한 선물**

출산 능력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준 선물을 특별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선물을 준 것을 보람있게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출산 능력은 항상 신성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전은 깨끗하고 순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런 지, 15세, 미국 아이다호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죄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며 축복받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과 같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십니다.]”(앨마서 7:21) 따라서 죄에서 멀리 떨어져 지낼 때, 우리는 영광 함께할 수 있습니다.

메리앤 피, 14세, 미국 아칸소

**중요한 질문**

“미래의 네 배우자가 지금 널 본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으로 친구의 물음에 답해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순결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모두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너에게 순결의 법을 지켰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친구는 순결의 법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알아야 합니다. 미래의 자녀가 그렇게 묻기 전에 말입니다. 신성한 법을 어겨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을 깨끗하고 순수한 상태로 지켜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로빈 케이, 13세, 미국 유타

**정결과 순결**



주님은 정결과 순결을 기뻐하시며, 어떤 일이든 그에 맞는 적절한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순결의 법은 주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기도하고, 성신과 함께하는 것은 순결이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완벽한 조합입니다.

셀린 알, 18세, 니카라과

**결혼 생활 안에서**

저라면, 친구에게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설명할 겁니다. 출산 능력은 법적으로 합당하게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순결의 법을 어길 때 우리는 삶에서 성신을 잃어버립니다.

오거스티나 에이, 15세, 가나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35쪽.



**순결의 법을  
어기면 심각한  
폐해가  
뒤따릅니다**

“주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에게 영원한

결혼 성약 내에서, 그분이 정하신 범위 내에서, 그들의 모든 사랑과 아름다움을 신성한 출산의 능력으로 표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

그러나 영원한 결혼 성약 밖에서의 그러한 은밀한 행위는 주님의 목적을 해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를 금하셨습니다. 신성한 결혼 성약 내에서의 그러한 관계만이 주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심각한 정신적, 영적인 해를 끼칩니다. 결혼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현재는 그 해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나중에는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은 …… 성신의 모든 영향력에 대해 장애가 됩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의로운 선택을 함”,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38쪽.

**다음 질문**

**“학교에서 낙태와 같이 복음 가르침에 위배되는 주제가 언급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5월 15일까지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또는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5/13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인 경우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신권 부름에서 봉사하는 방법

**영**혼의 가치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내재하는 **잠재력**에 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젠가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저의 예전 스테이크 회장님인 폴 시 차일드 형제님이 교리와 성약 18편을 읽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10절)

차일드 회장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혼의 가치란 무엇입니까?”** 그분은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 또는 고등평의원에게 대답을 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장로 정원회 회장을 지목하셨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그 형제님은 영원처럼 느껴졌을 그 순간,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능력에 있습니다.”**

회중은 그 대답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차일드 형제님은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셨지만, 저는 그 영감 어린 대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듣도록 준비시키신 고귀한 영혼을 **찾고, 가르치고, 감명을 주는 일은 위대한 임무입니다.** 성공은 간단히 오지 않습니다. 대개 성공에는 **눈물과 고난, 신뢰, 간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20) 이 중대한 약속은 집사, 교사, 제사 정원회 지도자로 부름받은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도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선교사로 봉사하려 준비하는 이들도 격려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는 낙담의 순간에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교리와 성약 64:33~34). **꾸준한 신앙, 일관된 신뢰, 열렬한 소망은** 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성이었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부름을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덜 되었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서는 부르신 자를 준비시킨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1987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 여러분은 어떻게 이것을 적용했습니까?

“주님이 제 편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제가 선교 사업을 가야 하는 이유를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서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주지는 않으실 것임을 압니다.”

딜런 엠, 미국 유타



사진 출처: 코디 벨 © iK

### 주와 의논하라

**열** 다섯 살 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같은 반 여자아이와 데이트를 하고 싶었다. 그 애는 정말 매력이 있었기에, 나는 16세가 되기 전에 데이트 신청을 해도 되는지가 마음에 걸렸다. 얼마서 37장 37절에 있는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라는 구절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주님께 기도를 했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 며칠을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감독님이 감독실로 부르시더니 다음 주 일요일에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하셨다. 주제가 무엇이이었을까? 바로 만 16세가 될 때까지는 데이트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주님의 응답이라고 느꼈다. 응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남에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나는 주님과 의논했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또 유혹을 멀리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가 주님과 의논할 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안다.

에두아르도 올리베이라,  
브라질 세아라

### 내가 좋아하는 성구

교리와 성약 24:8

“내가 …… 네 생애의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라는 말씀이 있는 이 구절은 시련을 겪을 때 제 기분을 북돋아 줍니다. 여기에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면, 그분은 제 생애 끝날까지 저와 함께 하시리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알레오 오르티스, 멕시코  
누에보카사스그란데스



### 속죄의 권능

**선** 교사님들이 나를 가르치면서 주로 다룬 주제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였다. 선교사님들은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라고 설명했다. 속죄는 시련을 겪거나 죄를 지을 때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은사이다. 속죄의 권능은 우리를 들어올리고 치유하며 영생으로 향하는 험작하고 좁은 길로 돌아가도록 돕는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때, 나는 그 말이

진실함을 증언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고, 교회에 들어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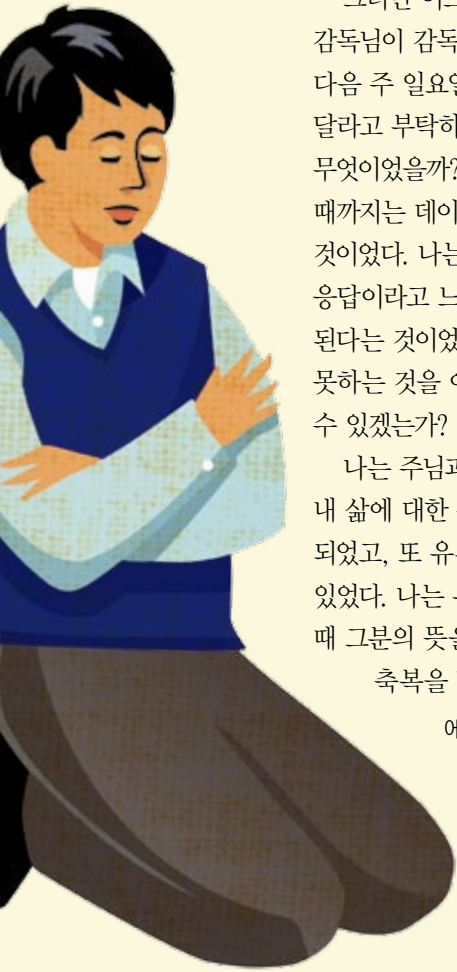
그리고 나는 선교 사업을 결심했다. 이 훌륭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속죄에 대해 가르치고 나누면서 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았다. 속죄에 대해 단순히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자 완전한 변화가 이어졌다.

나는 속죄가 실제임을 안다. 속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미칠 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오리티 타부루에아, 키리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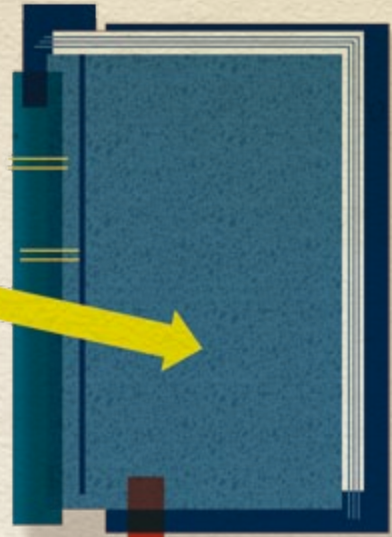
사진 제공: 알레오 오르티스, 그리스도와 부가인, 젊은 관음의 현대 사진,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제공, 삽화: 스캇 그리어







성경



몰몬경

우리에게

# 몰몬경이 필요한 이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성경이 있는데 왜 몰몬경이 필요하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같은 일을 이미 예고하셨다.(니파이후서 29:3 참조) 몰몬경이 이 시대에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예를 들어, 니파이후서 29:7~11 참조) 몰몬경이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경전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진리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 증인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 준다. 몰몬경은 그리스도를 간증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마크 이 피터슨(1900~1984)



## 두 증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증인이며, 몰몬경은 또 다른 증인입니다. 이 두 번째 증인은 왜 그리 중요할까요? 이런 설명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이에 찍은 점 하나를 지나는 직선을 몇 개나 그릴 수 있을까요? 무한정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한 점이 성경을 나타내며,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은 성경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상징하고, 그러한 각 해석은 각기 다른 교회를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그럼 그 종이에 몰몬경을 상징하는 두 번째 점을 찍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과 몰몬경을 상징하는 이 두 점 사이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나 그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두 증인이 전하는 간증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해석은 오직 하나만 남게 됩니다.

몰몬경은 증인으로서 성경에 있는 교리를 거듭 확증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통합시킵니다.”

데드 알 콜리스터 장로, 칠십인 회장단, “몰몬경,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75쪽.





## 대화에 참여하기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신권 정원회, 청녀, 주일학교에서(여러분의 와드나 지부가 자국어로 된 새로운 공과를 이용할 수 있다면) 배도와 회복에 대해 공부할 것이다. 몰몬경의 출현은 회복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기사를 읽은 후 몰몬경이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본다. 일지에 느낌을 적을 수도 있고, 집 또는 교회에서,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간증을 나눌 수 있다.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몰몬경을 갖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것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고린도후서 13:1 참조) 우리에게는 성경과 몰몬경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고대 대륙으로부터의 두 가지 음성이에요, 두 가지 경전이며,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sup>1</sup>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직접 몰몬경을 그분의 최고의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sup>2</sup>

### 충만한 복음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성경에서 “제하여진 명백하고 귀한 것들”(니파이전서 13:40)이 있음을 안다. 몰몬경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확증하고, 충만한 복음을 이 지상에 다시 되돌려 주었다.(니파이전서 13:38~41 참조) 예를 들어, 몰몬경은 침례가 침수로써 행해져야 한다는 것(제3니파이 11:26 참조)과 어린아이는 침례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도록 도와준다.(모로나이서 8:4~26 참조)

### 회복된 교회의 핵심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라고 간증했다.<sup>3</sup> 따라서 1830년 3월 26일에 몰몬경이 처음으로 공식 출판되고 나서 단 11일만인 1830년 4월 6일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없다.

이 교회는 회원들이 종석과도 같은 이 경전을 볼 수 있게 된 후에야 조직되었다.

### 우리 삶의 촉복

몰몬경에 대해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sup>4</sup> 몰몬경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에게서 몰몬경을 받게 될 사람들의 삶을 바꿀 힘이 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간증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데 몰몬경이 여러분의 품성과 능력, 용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합니다. 그 책에 담긴 가르침과 용감한 본보기들은 여러분을 고양시키고, 인도하며, 담대하게 해 줄 것입니다. ……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공부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신앙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 선지자에 대한 신앙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어떤 책보다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 줍니다. 삶을 더 낮게 변화시킵니다.”<sup>5</sup>

■

### 주

1. 마크 이 피터슨,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98쪽.
2.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1988), 204.
3. 조셉 스미스, 몰몬경 소개.
4. 조셉 스미스, 몰몬경 소개.
5. 헨리 비 아이어링, “증인”,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69~71쪽.





충실한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비옥한 토양

신디 스미스

# 유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우간다의 청소년들은 주위에서 신앙과 희망이 커져 가는 것을 보고 있다.

**모** 아프리카 중심부에 있는 아름다운 우간다는 완만한 언덕에서 사탕수수밭과 바나나 나무가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살 준비가 된 젊은이들이 있는 축복받은 나라이다. 우간다에 처음으로 스테이크가 조직된 것은 2010년이였다. 각 와드 지부를 가득 채우는 수많은 청년 청년들과 함께 이곳의 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깃발을 들어올리고 모범을 보이는**

본부 청년 회장인 일레인 에스 돌튼 자매의 정결에 대한 가르침은 한 와드의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금은 우리 각자가 일어나 세상에 덕으로의 회귀를 촉구하는 깃발을 휘날릴 때입니다.”<sup>1</sup> 그들은 마을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오르고, 정결의 모범이 되겠다는 자신의 맹세를 담아 금빛 깃발을 들어 올렸다. 그들은 함께 “높은 산 언덕 위”(찬송가, 2장)를 불렀다.

이 청년들은 개인적인 의의 표준을 높이 들어 올린 것이다. 그들은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돌튼 자매는 이렇게 말씀했다. “자신의 의로운 영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sup>2</sup> 깃발처럼, 이 청년들의 모범은 세상을 향해 휘날리고 있다.

우간다의 많은 청년들처럼, 산드라는

1.6킬로미터 이상을 걸어서 교회에 가며, 금요일에는 집회소 청소를 돕고, 토요일에는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주중에는 새벽 5시 전에 일어나서 교과서를 읽은 후 등교하며, 오후 6시 이후에 하교한다. 산드라는 집안사정이 어려워 1년간 휴학했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시련에 대처했다. “복음이 있었기에 제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산드라는 가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이지만, 부모님은 교회에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산드라를 지지해 주신다. 산드라는 와드에서

산드라

사진: 산드라 세라스







**맨 위: 함께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에 참석한 청소년**

**위: 우간다로 피난 온 난민인 수잔(가운데)은 복음 안에서 화평을 찾았고 이제 동생들과 다른 어린이들을 교회로 데려온다.**

**가운데: 이 와드의 청년들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오른쪽: 데니스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프로 축구단을 포기했다. 그와 제사 정원회에 있는 다른 청년들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희생하고 시련을 견뎌 냈다.**

현지 고아원 청소 등을 돕는 봉사 활동을 했다. 가족은 풀리지 않는 문제에 봉착한 산드라가 복음을 통해 어떻게 강해지는지를 지켜보았다. 그 힘의 근원을 생각하며 산드라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에 갈 때면 제가 하나님의 갑옷을 두르고 있는 것만 같아요.”(에베소서 6:11~17 참조)

산드라보다 조금 더 늦게 개종한 수잔 역시 교회를 사랑한다. 원래 남 수단 출신인 수잔의 가족은 고난을

피해 탈출했고, 우간다에서 선교사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피난민인 수잔은 복음 안에서 화평과 보호를 찾았다. 일요일이면, 수잔은 어린 동생들뿐만 아니라 10여 명의 다른 비회원 어린이도 함께 교회로 데리고 간다. 예기치 못한 가족의 죽음으로 수잔은 남 수단으로 돌아갔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수잔과 산드라 모두 역경에 처했으나 두 청년은 하나님께 의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면서 얻는 열매를 맛보았다.(엘머서 32:6~8, 43 참조)

### 선교 사업을 위한 희생

우간다의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는데, 단단하게 묶은 나뭇가지로 공을 만들어 사용한다. 데니스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운동에 특출했고, 고등학교에서는 운동부 장학금을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프로 축구단에서 숙소와 돈을 제공받았다. 꿈은 이루어졌지만, 데니스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그 해 후반에 선교 사업을 나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강했기에 데니스는 선교 사업을 나갈 시기가



되었을 때 프로 팀에 남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마저도 겪고 싶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으나 데니스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확신한다. “제 여동생과 두 남동생은 이제 갓 침례를 받았어요. 여동생이 복음을 받아들일 줄은 상상도 못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이 생겨요.”

데니스의 소속 와드 청년들은 매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공부를 한다. 그들은 한 팀처럼 움직인다. 전임 선교사들과 긴밀하게 일하며, 일요일 모임과 주중에 하는 농구와 축구 등 여러 활동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제사들은 선교사들을 도와 가르쳤던 친구들과 다른 이들에게 침례를 주었다. 몇 년에 걸쳐, 팀처럼 움직이는 이 청년들 덕분에

와드 전체가 강화되었으며, 데니스를 비롯한 네 명은 케냐 나이로비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그들은 십이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전한, “선교 사업을 하러 나가기 이전에 선교사가 되라”는 권고를 따랐다.<sup>3</sup> 그들은 정원회 회원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그렇게 했고, 그 정원회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강한 팀이 되었다.

그 네 명의 선교사는 모두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시련을 극복해야 했다. 일버포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비용] 때문에 선교 사업을 거의 포기할 뻔 했죠. 하지만 마태복음 6장 19~20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래서 근면과 헌신으로, 전임 선교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선교 사업을 사랑합니다. 하늘 왕국을 먼저 구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어요.”

#### 미래에 대한 희망

우간다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원대한 희망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돕는다. 동아프리카에는 아직 성전이 없지만, 청소년들은 먼 곳에 있는 성전에서 결혼할 때를 고대한다. 성전에 가는 준비를 위한 스테이크 활동을 마치면서, 한 스테이크 회장단은 이렇게 간증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우간다에 있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의로운 청소년들은 이미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우간다의 청년 청년들은 영원히 지속될 축복을 위해 세상의 것을 희생한다. 이 청소년들은 신앙의 씨앗을 심고, 정성스럽게 가꾼다.(엘마서 32:33~37 참조) 열매가 무성히 달린 나무처럼(엘마서 32:42 참조), 이들은 이 비옥한 땅에서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

신디 스미스는 남편이 우간다에서 일하는 동안 그곳에 머물렀으며, 지금은 미국 유타에 거주한다.

#### 주

1. 일레인 에스 돌튼, “덕으로의 회귀”,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0쪽.
2. 일레인 에스 돌튼,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0쪽.
3.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선교사가 됨”,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45쪽.







# 진정한 친구란?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전** 세계를 연결하는 현대 기술 덕분에 친구에 관한 정의는 변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친구”가 많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지인들과 현재와 과거의 친구들, 심지어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친구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소식과 근황까지도 알 수 있는 시대에 삽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란 말은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연락을 이야기할 때 더 자주 쓰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직접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과는 다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친구를 만드는 일에

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친구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한 정의는 많습니다. 저는 친구가 된다는 것의 의미와 삶에서 친구가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 가르치신 십이사도 정원회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정의는 제 삶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친구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1</sup> 이런 맥락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선한 면을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우정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우정은 상대방을 우선시합니다. 모든 일에서 철저히 정직하고 충실하며 순수하게 행동합니다. 아마도 친구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는 단어는 헌신, 약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딸 에이미는 열다섯 살 때 어떤 친구를 사귄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저는 에이미가 몰몬경에서 앨마서 48장을 펼쳐 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에이미는 모로나이 대장을 묘사하는 이 구절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모로나이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 그는 완전한 이해를 갖춘 사람이었으니 ……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사람이었나니”(11, 13절) 경전 한 귀퉁이에 에이미는 “나는 모로나이와 같은 사람과 사귀고 결혼할 테야.”라고 써 두었습니다. 저는 에이미를 지켜보고, 또 주변 친구들과 에이미가 16세가 되어 데이트를 했던 청남들을 보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이런 자질들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권 소유자로서, 미래의 아버지와 지도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들이 “조금 더 높아지도록, 조금 더 나아지도록” 영향을 줍니다.<sup>2</sup> 여러분은



서로 도울 수 있으며, 특히 청년들은 명예로운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봉사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로운 영향력과 우정은 여러분이 어울리는 사람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의 삶에도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주는 그분의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한복음 15:12~15, 강조체 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 그분의 복음을 나눈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저 소셜 미디어 사이트로 연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구주의 말씀과 모범을 따르는 주님을 닮은 친구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자 애쓰며 여러분의 빛을 말할 때, 여러분의 영향력은 여러분과 어울리는 많은 사람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일에 집중한다면, 선지자들이 정의하고 경전에 나온 것처럼 행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진정한 우정과 관련하여 경전에서 언급된 다음과 같은 영광스러운 약속을 장차 받게 될 것임을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귀이 그 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귀이에는 지금 우리가 향유하지 못하는 영광, 곧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교리와 성약 130:2) ■

주

1. Robert D. Hales, “This Is the Way; and There Is None Other Way,”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1981-82*(1982), 67.
2. 고든 비 헝클리, “탁월함을 추구함”, *리아호나*, 1999년 9월호, 8쪽.

### 우정에 관한 핵심 개념들

“높은 표준에 따라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강화하고 격려할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표준을 낮추지는 마십시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16쪽.





# 구원으로 나아오라는 권유

에머슨 호세 다 실바

**청** 남 시절에 나는 많은 종파를 접해 보았는데, 제각각 경전을 다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 때문에 무척 혼란을 느꼈었다. 그리고 그들의 몇몇 가르침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아 내가 다닐 교회를 찾는 일을 그만두었다.

몇 년 후, 친구인 클레이튼 리마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절친한 사이였음에도 클레이튼은 나에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친구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요일 아침이면 클레이튼의 집에 가서 축구를 했었는데, 이제 클레이튼은 일요일에 집에 없었다. 이삼 주를 연속으로 일요일마다 그랬다. 마침내 클레이튼은 주님의 날을 소중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더는





축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 나는 “교회에 가더니 정신이 이상해진 것 아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클레이튼은 내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권해 왔다. 나는 여전히 종교에 흥미가 없었기에 핑계를 댔다. 열 달에 걸쳐서 클레이튼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 선교사들을 데려왔지만, 나는 늘 핑계를 대거나 너무 바쁘다고 하며 피했다. 하지만 내 친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6월 어느 날, 클레이튼이 교회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나를 초대했다. 나는 “공짜 음식은 많아? 아님 여자애들은 많니?” 하고 빈정댔다. 하지만 클레이튼은 웃으면서 “ 많아!” 하고 대답했다.

공짜 음식에 끌려서 갔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나는 교회에 가게 되었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 모두에게 환영받았고, 음식도 많이 먹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서도 재미를 느끼게 되었다. 일요일에

갔을 때에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의 간증도 들었다. 물론경을

잘 몰랐지만, 많은 분들이 “저는 물론경이 참되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임을 압니다.”라고 간증했을 때, 나는 주님의 영을 느꼈다. 그렇게 좋은 느낌은 난생 처음이었다. 여전히 선교사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간증 모임은 내게 감동스러웠다.

그다음 주에 클레이튼은 다시 나를 교회로 초대했다. 하지만 그 주에는 다른 일이 있어 가기가 어려웠다. 갈 수 있을지 확실히는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나는 친구의 얼굴에 실망감이 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교회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다. 나는 평소라면 일어나기 힘든 시간인 6시 50분에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고서 클레이튼이 오기를 기다렸다. 클레이튼은 옷을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 일요일에 우리는 감독님에게서 신권에 관해 배웠다. 나는 영을 강하게 느꼈고, 선교사 토론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 청남 모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내가 침례받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교회 모임 후에 클레이튼에게 “침례받고 싶어!”라고 말했다.

클레이튼은 내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지만 곧 “장로님들에게 연락할 테니 그분들과 만나 보겠니?”라고 말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나는 훌륭한 장로님들에게서 복음을 배웠다. 회복에 대해 들었을 때,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더 강한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물론경이 진리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고 싶었다. 장로님들은 물론경에 있는 모로나이서 10장 3~5절을 표시한 후, 내게 물론경이 진실한지를 기도로써 하나님께 여쭙어 보라고 권했다.

다음 날 저녁에 나는 내가 아직 물론경을 읽지 않은 것이 생각났다. 물론경을 읽기 시작하자 아주 강한 영이 느껴졌다. 나는 기도를 드렸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물론경이 참됨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나는 2006년 7월에 침례를 받았다.

나는 브라질 쿠이바 선교부에서, 내 친구 클레이튼은 브라질 산타 마리아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우리는 클레이튼이 내게 했던 일을 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권유하며, 그들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도록 도왔다. 이것은 구원으로 향하는 참된 길이다.

구주께서 “내게로 오라”(마태복음 11:28)고 모두에게 권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 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지금은 모두에게 그분께 나아오라고 권유해야 할 때임을 안다. ■





# 자신이 개종했는지 알 수 있는 열 가지 방법

타일러 오튼

**내**가 신권회 모임에서 배운 아론 신권의 목적 중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부모님과 누나와 형들에게 그 의미를 물어보았고, 우리는 함께 자신이 개종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이야기했다.

아마 다른 방법도 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낸 열 가지 방법을 여기에 소개해 보려 한다. 개종이란 평생에 걸쳐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각 분야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발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개종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알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 단지 들키거나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 잘못을 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으로 개종할 때 진심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자 한다.

**2.** 개종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그른 것을 행할 마음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엔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이 그 좋은 예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했다.”(모사이야서 21:31) 베냐민 왕의 가르침을 들은 니파이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었다].”(모사이야서 5:2) 그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종했고, 사탄의 유혹은 더 이상 소용이 없었다.

**3.** 개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더 염두에 둔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다. 모두 파티를 즐기고, 또 그 학생들이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놀려 댈 때면 종종 파티에 가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다. 우리 형은 여러 번 음주 파티에 초대받았으나 한 번도 가지 않았다. 형은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고, 형은 집에서 홀로 밤을 보내는 때가 많았다. 졸업식에서 작별인사를 할 때, 몇몇 학생들은 형에게 또래의 압력을 이겨 내고 자신의 표준에

충실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은 그런 이유로 많이 존경한다는 말을 형에게 해 주었다. 형은 또래 압력을 이겨 냈으므로 자신이 개종했음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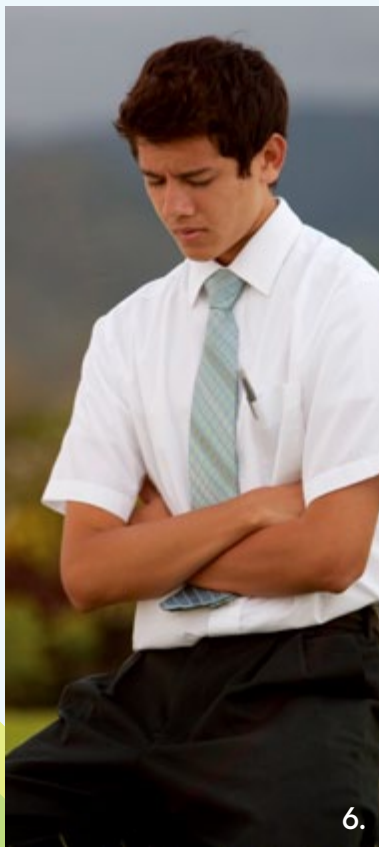
**4.** 개종한 사람은 언제나 복음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일요일이나 자신에게 편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다. 누구와 있든지, 혹은 누가 지켜보고 있든지 간에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친구가 저속한 농담을 하거나 외설물을 보려고 할 때, 동참하지 않는다. 단지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5.** 개종한 사람은 사람들을 더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한다.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는다. 사람들의 기분을 더 잘 파악한다. 봉사하고 도움을 줄 방법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 학교 복도를 걸어갈 때 누군가 책을 떨어트리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당연히 멈춰서 도와준다.

**6.** 개종한 사람은 기도하고 싶은 소망이 더 커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고 있다고 느낀다. 기분이 어떻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언제나 기도할 시간을 낸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이렇게



5.



6.



2.

개종한 레이맨인들은 그들이 언약한, 복음대로 살겠다는 성약에 충실하겠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무기를 땅에 묻었다.(앨마서 24장 참조)



**행복으로 향하는 확실한 길**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교회 회원들이 그분의 복음으로 온전히 개종되기를 바라십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안전을 얻고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확실한 길입니다.”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칠십인 회장단, “주님의 교회를 통해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하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5쪽.





말씀하셨다. “기도하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기도하고자 하는 느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sup>2</sup>

**7.** 개종한 사람은 일요일이 기다려진다. 그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일요일이 되면 ‘이런,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영화를 볼 수도 없는 날이군.’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와, 교회에 가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하고 생각한다.

**8.** 개종한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핑곗거리를 찾지 않으며 행동을 합리화하거나 표준을 모호하게 지키는 법이 없다. 표준의 경계선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임을 알기에 그렇게 한다.



**9.** 개종한 사람은 십일조 내는 것을 고대한다. 십일조를 내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10퍼센트는 여러분이 받는 축복과 만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낀다. 이런 축복은 여러분이 내는 10퍼센트의 금액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10.** 개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찾은 진리와 행복을 알게 해 주려는 강한 소망이 있다. 경전에 나오는 좋은 예는 리하이의 꿈이다. 꿈에서 리하이는 생명나무에 열린 맛있는 과일을 가족에게도 먹고 싶은 강한 소망이 있었다. 리하이가 열매를 따 먹고 맨 처음 한 생각은 더 먹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찾아서 그들도 그 열매를 따 먹고 똑같은 행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니파이전서 8:12 참조)

요약하자면, 더 높은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기 시작할 때 개종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율법 자체만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대로 살게 된다. 삶의 모든 면에서 복음대로 살게 된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복음대로 사는 것이다. 더 행복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한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개종하게 된다. ■

타일러 오토는 인도네시아 자바에 살고 있다.

주

1.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8.1.3.
2. 에스라 테프트 벤슨, “항상 기도하라”, 성도의 빛, 1990년 6월호, 4쪽.



# 열심히 노력한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계속 노력할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을  
보며 놀랄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40~41쪽 참조)





# 데니 할머니의 꼬마

## 선교사

에밀리아 마리아 구이마라에스 코리어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니파이후서 33:1)

**비** 토르는 데니 할머니 댁에서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살았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할머니는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지내셔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홀로 방에 계셔서 외로우셨습니다.

비토르는 데니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토르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리아호나를 들고 할머니 방으로 가서 친구들 난에 있는 이야기를 읽어 드렸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리아호나를 다 읽어 드린 후에는 할머니께 몰몬경과 성경을 읽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데니 할머니는 교회 회원은 아니셨지만, 비토르가 읽어 드리는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해 배우는 것을 행복해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저것 많이 물으셨습니다. 비토르는 뭐라고 대답해 드려야 할지 모르는 것은 초등학교 선생님께 여쭙보거나 경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비토르를 꼬마 선교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데니 할머니는 비토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함께 교회에 나가겠다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복음을 배워 나가면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얼른 일어나 복음을 더 알아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이윽고 다시 건강해지신 데니 할머니는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비토르가 가르쳐 드린 것을 더 배우기 위해 비토르와 함께 교회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침례와 확인을 받으셨습니다. 비토르는 할머니가 복음이 참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어른이 된 비토르는 매사추세츠 보스턴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전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떠나기 전에 비토르는 데니 할머니와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

에밀리아 마리아 구이마라에스 코리어는 브라질 연방구에 산다.



특별한 증인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입니다.

# 우리 교회 이름은 왜 이렇게 길까요?

**이** 교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15:4 참조)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말은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후기라는 말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던 시대에 세우신 교회와 같은 교회로서, 후기에 회복되었다는 점을 설명해 줍니다.

성도라는 말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몰몬경을 믿는다는 이유로 몰몬이라고도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교회 이름을 사용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교회의 정식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름의 중요성”,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79~82쪽.





다시 젠슨

**슬** 트레이크 성전이 1893년에 완공되었을 때 후기 성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어린이들이 헌금을 해서 이 성전이 건립되도록 도왔기 때문에 월포드 우드럽 회장님은 어린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특별 헌납식을 다섯 차례 열기로 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곳곳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여전히 성전이 완공될 때면 이를 축하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성전을 축하할까요? ■

다시 젠슨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다.

만이천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헌납식을 위해 솔트레이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기차를 타고서 슈가 하우스 와드에서 왔습니다.



16세 이하인 어린이들은 이 표를 가지고서 솔트레이크 성전 특별 헌납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일회장단은 성전 안에서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전을 개축한 후에 재헌납할 때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알래스카 앵커리지 성전 재헌납을 축하하는 공연에서 노래를 부르고 등불을 들었습니다.



애리조나 길버트 성전이 건축될 당시, 애리조나 길버트 하이랜드 스테이크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와드의 누군가를 위해 매주 봉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성전이 건축될 때, 멕시코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성전을 위해 다채로운 색깔로 된 양탄자를 짰습니다. 성전 헌납식에서 총관리 직원들은 그 양탄자 위에 서서 초석을 놓는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 성전 건축을 축하하며!



캐나다 매니토바의 초등회 어린이들은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리자이나 서스캐처원 성전에 가서 벽을 만져보며, 언젠가 그곳 안에 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 성전 일반 공개에서 초등회 어린이들은 “나 성전 보고 싶어”를 부르며 방문객을 맞이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800명이 넘는 초등회 어린이들이 가나 아크라 성전 헌납 전에 열린 문화 축제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을 헌납하기 위해 오셨을 때 초등회 어린이들은 그분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각 성전에는 헌납된 연도가 적힌 초석이 있습니다. 헌납식 때 총관리 역원들은 회반죽으로 초석을 봉합니다. 아홉 살인 아이작 비는 미주리 캔자스시티 성전의 초석에 회반죽을 바르는 일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 성전에 관한 질의응답

## 우리에게 성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은 신성한 곳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배우고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합니다.

## 성전 안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평화롭고 경건하며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모두 하얀색 옷을 입으며, 말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합니다.

## 성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봉되면,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 엔다우먼트라는 영적인 은사를 받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게 엔다우먼트를 받은 사람은 성전 성약을 맺지 않고 죽은 사람을 위해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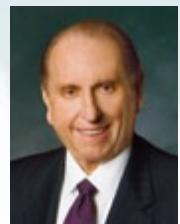
## 그 외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일들이 있습니까?

인봉과 엔다우먼트 외에 다른 의식도 성전에서 행해집니다. 살아 있을 때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침례와 확인을 받습니다. 열두 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면, 여러분도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 침례와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아직 성전에 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성전 의식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언젠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고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세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



“젊은 친구 여러분 …… 늘 성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성스럽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3쪽.



# 가족은 영원해

(쉽게 편곡한 노래)

작사: 루스 뮤어 가드너  
작곡: 바나 와이 왓킨스

밝게 ♩ = 80-96

1. 나 에 겐 가 족 이 있 네 소 - 중 한 내 가 족  
2. 나 이 곳 에 서 살 동 안 잘 - 준 비 하 여 서

난 가 족 과 함 께 영 원 히 살 고 싶 어 라  
거 룩 한 주 님 성 진 에 서 결 혼 하 리 라

후렴  
하 나 님 의 계 획 으 로 가 족 은 영 원 해 나

언 제 나 가 족 과 함 께 하 도 록 주 님 방 법 보 여 주 셧 네 방

법 을 보 여 주 셧 네

작사 작곡 © 2012 IRI. 판권 소유.

이 곡은 반주나 비상업적인 용도로 교회 또는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는 후기에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셨다



여기에 나오는 공과와 활동을 활용하면 이번 달 초등회 주제에 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

**보** 물찾기를 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물을 찾을 건가요? 어떻게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물상자가 있을까요?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보물상자에는 아름다운 보석과 귀한 금화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귀중한 보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물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보물을 나눌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이 돌아가신 후에 침례와 신권 권세, 성전, 살아 있는 선지자,

성찬식 등 중요한 복음 가르침과 의식들은 없어져 버리거나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보물과도 같은 이러한 복음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진리를 알기 위해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후에 조셉은 금판을 받았고, 그것을 번역하여 몰몬경이라는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우리는 몰몬경에 담긴 가르침을 소중히 여깁니다. 몰몬경에는 한때 잃어버렸던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이 얼마나 값진 보물입니까! ■

## 경전과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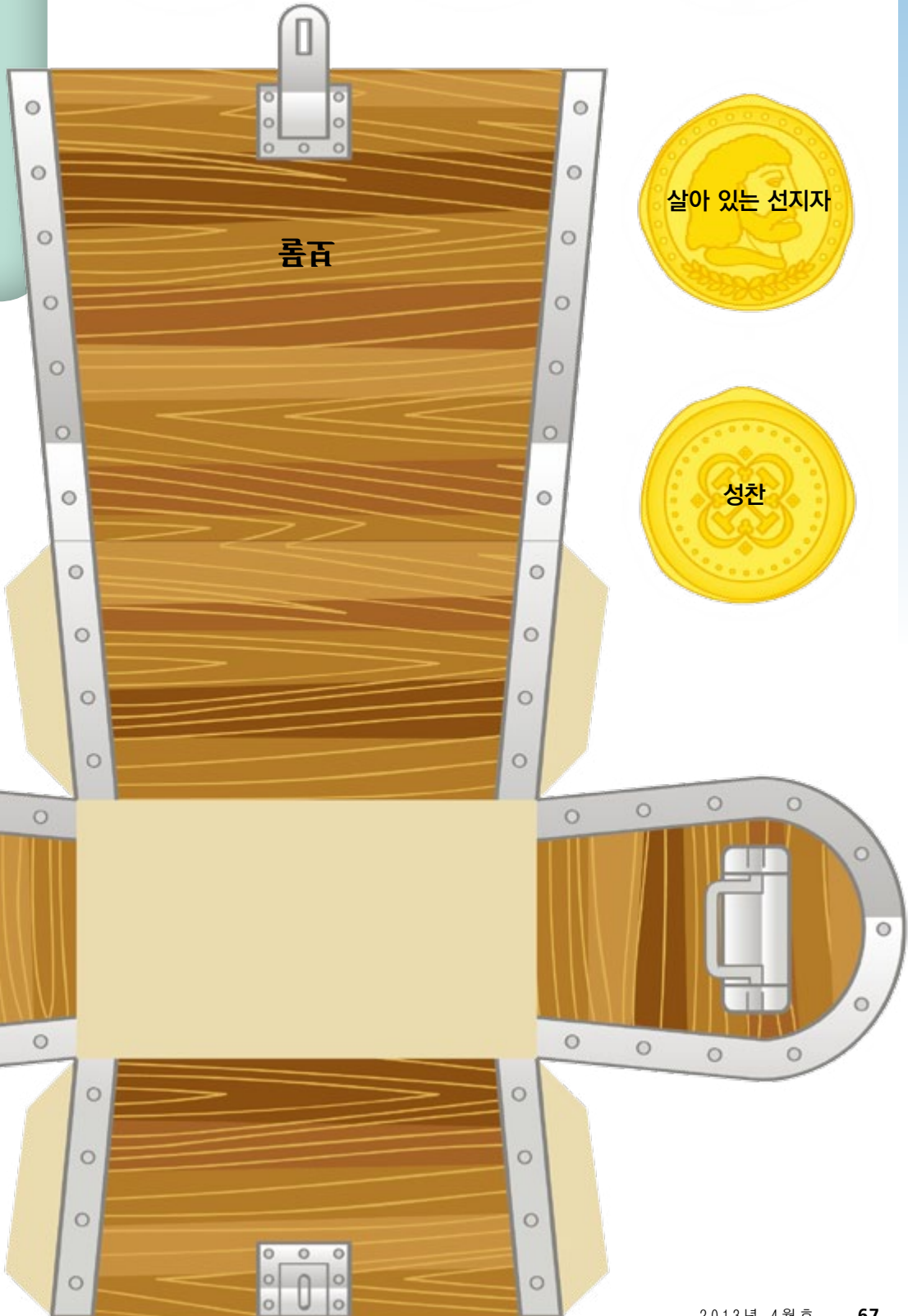
- 교리와 성약 35:17
- “성스러운 숲”, *리아호나*, 2001년 4월호, 친9쪽(혹은 복음 회복에 관련된 다른 노래)

##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귀중한 보물이 어떻게 가족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세요.

# 복음 보물상자를 만들어 보세요

이 보물상자를 오려서 아래쪽에 있는 상자처럼 접어 보세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준 보물들이 적힌 금화를 오려 내서 보물상자 안에 넣어 보세요. 그 상자 안에 든 보물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복음이 주는 축복을 늘 기억하세요.





# 교회가 조직된 곳



젠 핀보로우  
교회 잡지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곳을 함께  
탐방해 볼까요?

**매** 기와 릴리는 교회가 처음  
조직된 곳을 보기 위해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답니다.  
그곳은 매기와 릴리가 일요일마다 가는,  
뉴욕 주 페이에트에 있는 예배당 바로  
옆에 있거든요!

교회가 처음에 조직된 곳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통나무집 안이었습니다.

1829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휘트머  
가족과 함께 지내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왔습니다. 원래 있던 집은 없어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이 통나무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매기와 릴리가 다니는 교회 건물에는  
휘트머 집과 그곳에서 있었던 특별한  
일들이 전시된 방문자 센터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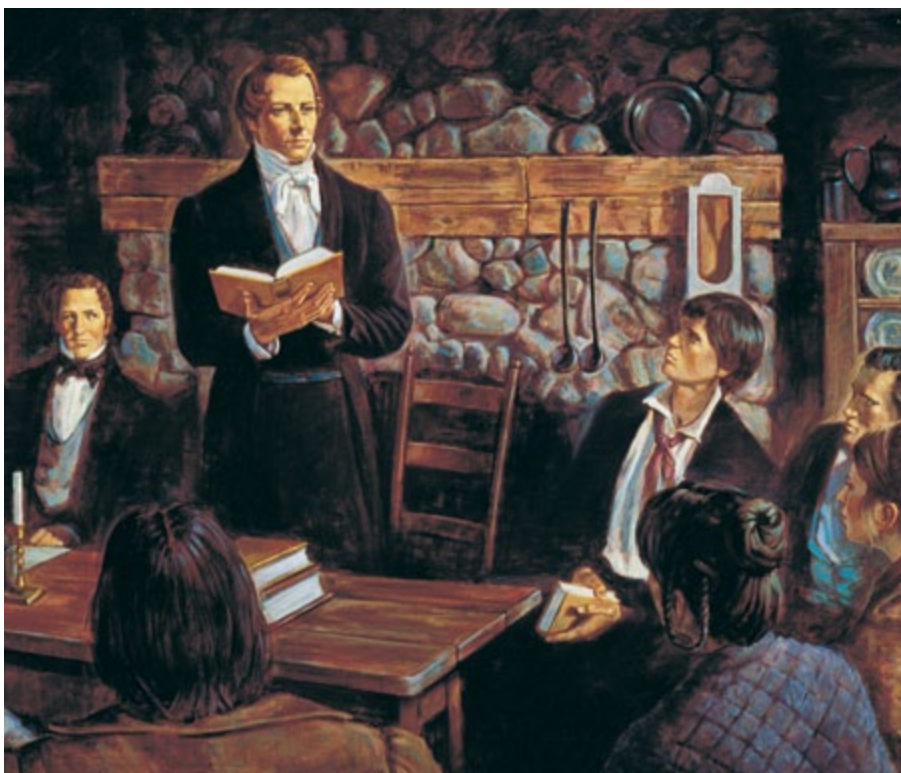


1. 조셉 스미스는 이곳에서 물몬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2. 이 집과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세 사람이 천사 모로나이와 금판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접 금판을 목격했기 때문에, 즉 보았기 때문에 세 증인이라고 불립니다. 물론경 맨 앞에는 그 세 증인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3. 1830년 4월 6일 60여 명이 모여서 특별한 모임을 했습니다. 그날 조셉 스미스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조직했으며, 성찬이 축복되고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찬식이었습니다!

## 그때와 지금의 침례

열한 살인 매기와 아홉 살인 릴리는 교회의 첫 번째 침례가 집행되었던 곳과 가까이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소녀는 침례를 받게 되어 무척 신이 났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가 오자 릴리는 감독님과 접견을 했습니다. 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은 제게 선지자에 대한 간증이 있는지, 십일조를 내는지 물어보셨어요.”

이 두 소녀는 침례 받은 날에 관한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매기는 “물에서 나왔을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라고 말합니다.

두 소녀는 이 특별한 날 느꼈던 기분을 기록할 일지를 받았습니다.



4. 모임이 끝난 직후, 조셉 스미스의 부모님과 몇몇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 맥스와 미아, 초능력 영웅이 되다!

크리스 디버, 미국 텍사스

맥스는 초능력 영웅 놀이를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맥스는 빨간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초능력 영웅처럼 망토도 둘렀습니다. 그리고는 여동생 방으로 갔습니다.



“얼른 나와, 미아! 곤경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자!” 맥스가 외쳤습니다.



맥스와 미아는 거실로  
갔습니다. 빨래가 가득 담긴  
바구니가 보였습니다.

“좀 도와 주겠니?” 엄마께서  
부탁하셨습니다.

“네. 엄마를  
도와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구하러 가도 돼요.”  
맥스가 말했습니다.



맥스와 미아는 엄마를 도와  
빨래를 개고 제자리에 갖다  
두었습니다.

맥스의 눈에 마룻바닥에  
떨어진 쓰레기가 보였습니다.  
“쓰레기를 전부 줍자.” 맥스가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구할 수 있으니까.”





맥스와 미아는 집안을 살살이 살폈습니다. 둘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다 주웠습니다.

엄마가 부엌 바닥을 쓸고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맥스가 말했습니다.

맥스가 바닥을 쓰는 동안 미아는 쓰레받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 맥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깨끗해진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엄마는 맥스와 미아를 꼭 안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구해 났는걸!” ■



###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마태복음 14:26~27).



# 교회 소식

더 많은 교회 소식과 행사를 보려면 [news.lds.org](http://news.lds.org)에 접속한다.

## 전 세계 지도자 훈련-새로운 접근



엘 톰 페리 장로와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딘 엠 데이비스 감독이 신권 열쇠 사용의 중요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영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에 참여할 것이다.

올해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은 과거의 훈련 모임과 달리 와드 및 스테이크 지도자용 단일 행사로 방송되지 않을 것이다. 올해부터 DVD 및 LDS.org로 볼 수 있는 이 훈련은 짝막한 아홉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모든 지도자와 회원들, 가족들이 함께 토론하게 한다.

훈련의 목적은 “신권을 통한 가족 및 교회 강화”이다. 이 훈련에서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다른 총관리 역원 및 본부 역원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영적인 가르침을 줄 것이다.

- 어떻게 가족들이 신권 권능을 통하여 힘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 어떻게 모든 가족이 신권 축복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을까?
- 어떻게 하여 신권 열쇠를 보유하고 있는 형제들이 가정과 가족들을 강화할 수 있을까?
-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이 성역을 베풀 수 있을까?
- 어떻게 어린이들을 빛과 진리 가운데 기를 수 있을까?

모든 교회 단위 조직은 DVD를 하나씩 받을 것이며 와드 및 스테이크 평의회는 DVD 전체를 시청하도록 권유를 받는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와드 및 스테이크 회원들이 그러한 훈련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도록 도울 수 있을지 함께 협의해야 한다.

회원들은 모임과 공과 시간에 DVD의 각 부분을 시청한 후 토론할 수 있다. 가족과 개인들은 각 부분을 시청하고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추가 자료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나, DVD의 각 부분의 시청이 끝나고 토론이 시작될 때, 가장 효과적인 훈련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지도자 및 회원들, 가족들이 듣고 느낀 바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나누며 간증할 때,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한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을지 성신이 그들을 가르치고 영감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체험을 통해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은 전 세계 가족과 교회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엠 러셀 벨라드 장로, 린다 케이 버트,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일레인 에스 돌트, 로즈메리 엠 워슨, 그리고 게리 이스티븐슨 감독이 “This Is the Place Heritage Park” 공원 안에 있는 ‘메리 필딩 스미스’ 집 밖에 서서, 모든 가정이 신권을 갖게 된 축복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응하다 가정과 교회에서 선교사 마음가짐을 조성하다

헤더 휘틀 위글리  
교회 소식과 기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콩그레쇼 스테이크 파르케 차카부코 와드의 빅터 노갈레스 감독이 그 와드 청남 청년 37명의 사진으로 가득 찬 게시판 앞에 앉아 있다. 그들 중 한 명이 선교 사업을 떠날 때면, 그는 그 사진 밑에 메모를 붙인다.

“우리 청소년들은 제 사무실에 들어와 사진과 이름이 적힌 메모를 보며 매우 즐거워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것들은 그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동기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 와드는 선교 사업의 영에 대한 전형적인 예다. 2012년 전만 6개월 간, 개종자 열네 명을 포함한 열아홉 명의 청소년이 각자의 집을 떠나 여덟 나라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자격이 되는 청소년의 80퍼센트 이상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최근 몇 년 사이 교회 지도자들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교회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침서*를 출판하고 나서 곧바로 열린 200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가 지도자와 가족들에게 준 권고는 청남 청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이 누구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더 많은 청남 청년들이 명예롭게 봉사하도록 준비를 시키고 선교사업의 영을 조성하라는 것이었다. (“한 사람만 더”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69쪽 참조)

2012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선교사 연령 기준 변경을 발표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말씀 또한 주님께서 그분의 사업을 서두르신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오늘날 많은 가족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지역에서 풍성한 선교 사업의 전통을 세우고 있다.

##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도록 청소년을 도움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어떻게 준비시킬 수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노갈레스 감독은 이렇게 응답했다. “제가 감독으로 부름 받았을 때, 제 첫째 관심은 와드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와드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차카부코 선교사들은 선교사로 출발하기 전에

와드에서 부름을 받았다. 종종 새로운 개종자들과 저활동 회원들도 교사나 다른 부름에서 봉사하도록 부탁받았으며, 그러한 부름은 그들이 복음을 가르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노갈레스 감독은 또한 청소년들이 매주 그 지역의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하게 함으로써 선교 사업을 위해 영적으로 준비되게 했다.

지역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와드의 청소년들에게 헌신하자 선교 사업의 영이 크게 자라는 것을 보는 축복을 받았다.

## 선교사의 마음가짐을 한 가족

미국 유타주 드레이퍼에 사는 거스와 엘로이스 앤드리스 부부는 선교사의 마음가짐을 한 가족을 갖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안다. 그들은 선교사로 봉사한 손자 손녀 17명이 있으며, 그들 자신도 선교사로 여섯 번 봉사했다.

가정에서 선교 사업의 영을 조성하는 것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앤드리스 형제는 말했다.

앤드리스 자매도 동한다. “자녀에게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 나갈 것인지에 대해—자녀 및 손자 손녀들과 편하게 이야기 하십시오.”라며, 앤드리스 자매는 남편의 말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선교 사업의 모범을 보여 줌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것 또한 중요하다. 1980년, 앤드리스 형제 부부는 첫 부름을 받아들였다. 막내 아들이 이제 막 선교 사업을 떠날 때였다.

선교 사업 준비를 돕기 위해 그들이





빅터 노갈레스 감독이 현재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와드의 모든 청소년이 나와 있는 게시판 곁에 서있다.

보낸 약간의 돈을 받은 한 손자가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앤드루스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손자는 우리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 감사 드리고 싶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두 분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라고 적었더군요.”

### 교리를 가르침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나 교회 지도자, 교사들은 그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벨라드 장로는 말했다. “성신이 그들의 마음에 진리를 확인해 줄 것이며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빛을 점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완전히 준비된 선교사 한 사람 더 갖게 됩니다.”(엠 러셀 벨라드, “한 사람만 더”, 71쪽)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약 9,600

킬로미터 떨어진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 근처의 시골 호스슈 밴드 지부도 가족과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노력을 강화하자 선교 사업을 나가는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다.

회원이 75명에 불과한 작은 지부 출신 젊은이 아홉 명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가 봉사의 이유와 그 유익에 관해 강조하였다. “모든 선교사는 ..... 오직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낮게 만들겠다는 소망으로 봉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은 선교사 본인과 미래 배우자, 그리고 자손의 영적인 운명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봉사하려는 소망은 그 사람의 개종, 합당성, 준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8쪽)

아이다호 에밋 스테이크 회장인 마틴 위커가 동의했다. “젊은이는 선교 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주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우리는 스테이크 차원에서 젊은이들이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 준비의 일부에 포함됩니다. 호스슈 밴드 지부의 청소년들은 스테이크 월레 청소년 선교사 준비 모임과 연례 아론 신권 야영에서 제공하는 선교사 훈련의 심화 보충 교육으로, 전 선교부 회장이 가르치는 선교사 준비반에 매주 참석할 수 있다.

앤드루스 형제 부부의 여섯 자녀 가운데 하나인 라린 애덤 자매는 남편인 짐과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덴마크 코펜하겐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녀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간증했다.

“자녀가 선교 사업에 대한 간증을 키우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가정의 밤을 갖고 가족 경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들에게 복음 공부와 복음 지식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쌓아 준다면, 그들은 훨씬 잘 준비되고 복음에 대해 훨씬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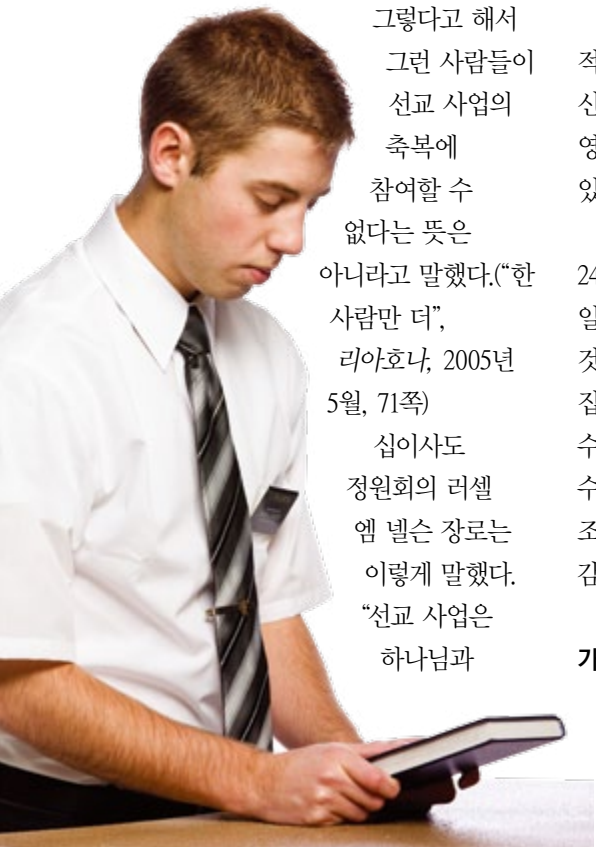
# 청년 교회 봉사 선교사들, 봉사를 통해 기쁨을 찾다

캐롤린 카터  
교회 소식과 기사

**에**르네스토 사라비아 장로는 봉사하는 내내 김정색 선교사 명찰을 달고 있다. 하지만 그의 선교사 임무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즉, 사라비아 장로는 멕시코 에르모시요 선교 본부에서 청년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청남 청년 중 어떤 사람에게는 고되고 힘든 전임 선교 사업을 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말씀했다. 하지만

벨라드 장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선교 사업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  
사람만 더”,  
리아호나, 2005년  
5월, 71쪽)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벨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선교 사업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자발적인 행동입니다.”(“선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8쪽), 게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와 같은 봉사를 할 수 있다.

전임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 것에서 명예롭게 면제가 되는 사람들, 혹은 조기 귀환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청년 교회 봉사 선교사’ 프로그램은 뜻 깊은 선교 경험을 줄 수 있다.

## 봉사하기 위한 요건

청년 교회 봉사 선교사는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 부름 의무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청년 교회 봉사 선교사 임무는 6~24개월까지 다양하며, 일주일에 며칠간 일하는 것에서 전임으로 봉사하는 것까지 여러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다. 집에서 봉사하거나 지역사회에서 봉사할 수도 있다. 청년 교회 봉사 선교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임무로는 가족 역사 조사, 정보 기술, 선교 본부 보조, 감독의 참고 등이 있다.

## 가족 및 신권 지원

부모, 신권 지도자 및 교회 회원들은 교회의 예비 청년 교회 봉사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엘리자 조이 영 자매의 가족은 그녀가 호주 시드니에 있는 교회 본부에서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 든든하게 지원해 주었다.

홍콩 배부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마이클 힐럼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준비하도록 도와준 분들은 새벽 세미나리 교사님들과 청남 지도자들입니다.”

## 희생은 축복을 가져온다

영 자매는 아르바이트에서 쉬는 날을 희생해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녀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분을 더 가깝게 느끼게 돼요.”라고 했다.

이러한 영적 축복 외에도,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젊은 선교사들에게 귀중한 사회적, 직업적 기회가 된다. 영 자매는 “제 선교 사업은 제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어요.”라고 했다.(그녀는 과거에 보조로만 일을 해 보았다.)

교회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 성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합당한 청년 성인들을 수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청남과 청년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들은 적절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news.lds.org에서 “청년 교회 봉사 선교사”를 검색하여 더 많은 자료를 읽어 본다. ■



# 본부 청년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이 아시아 지역을 순방하다

브렌다 프랜슨, 아시아 지역 미디어 전문가  
협조한 분들: 데이비드 오 힙스, 폴 스티븐스, 린다 래폰 스미스

**20** 12년 11월 아흐레 간, 본부 청년회 회장단 제1보좌 메리 앤 쿡, 그리고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인 린다 에스 리브스 자매는 젊은 자매부터 나이든 자매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전 지역 자매들을 가르치며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번 여행은 개정된 청소년 교과 과정 *와서 나를 따르라* 발표와 때를 같이하였다. 이 교재는 2013년 1월부터 청남 및 청년, 청소년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사용되고 있다. 이 새로운 교과 과정은 교사들이 반원들과 더 강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욱 구주처럼 가르치도록 도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쿡 자매와 리브스 자매의 아시아 지역 순방이 있은 후, 많은 아시아 청소년과 그 부모들은 이제 더욱 분발하여 자신의 삶을 순화하고 재조정하여 그들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았다.

*타이완에서 메리 앤 쿡 자매와 린다 에스 리브스 자매는 지역 역원들과 타이완 신권 지도자들, 그리고 회원들을 만났다.*

홍콩에서 리브스 자매는 청소년들에게 약속했다. “여러분이 깨끗한 삶을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나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씀에 영감을 받은 12살 탕 객케이는 모임 뒤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날마다 물몬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는 제가 회개하며 의롭게 사는 것을 배움으로써 그리스도의 빛과 진정한 행복이 저를 환하게 비추게 할 수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인도에서 쿡 자매는 새로운 인도 하이데라바드 스테이크 회원들, 그리고 인도 첸나이 지방부의 신축 집회소에 모임 회원들과 모임을 갖고 청년 독신들에게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고 권고했다. “왕국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갖추어서 여러분 스스로 교육적으로 자격을 갖추십시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집중하십시오. 또한 영적 속삭임을 듣기에 합당하게 되며,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깨닫기 위해 영적인 준비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인도네시아에서 리브스 자매는 새로운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 스테이크에서 열린 최초의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영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충실한 회원들이었습니다!” 라고 리브스 자매는 말했다.

뒤이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리브스 자매는 말레이시아 국내의 한 조직으로써 상호부조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지침과 영감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토론했다.

타이완에서 리브스 자매는 지역 회원들의 헌신과 힘에 관해 언급했다. “그분들의 충실한 삶과 꾸준한 성전 참여에 대해 알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 회원들은 그들 친구와 이웃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



사진: 영 지에벨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이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서 있는지 보여 준다.

**청소년 사진을 구함**

올해의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교리와 성약 87:8)이다. 청년과 청년, 그리고 리아호나를 거룩한 곳에 서있는 여러분의 사진들을 찾고 있다. 가족과 같이 보내거나 봉사하는 여러분, 선교 사업을 하거나 창작 활동을 하는 여러분, 복음을 연구하거나 자연을 탐험하는 여러분, 그밖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여러분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여 줄 수 있다! 사진 제출하는 방법

-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여러분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한다.
- 여러분의 고해상도 사진을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로 보낸다.
- 어떻게 이곳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곳인지 설명을 덧붙인다.
- 이메일에는 여러분의 성명과 출생일, 와드나 스테이크(지부나 지방부) 그리고 부모님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시킨다.

전 세계 청소년 사진이 다음 리아호나에 실릴 것이다.

**모로코를 방문한 사도**

2012년 12월, 십이사도 정원회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교회의 3,000번째 스테이크를 세우고 나서, 모로코 공화국 라바트에 있는 교회의 작고 외딴 지부 한 곳을 특별히 방문하였다.

특별한 일요일 저녁 영적 모임에서, 홀랜드 장로는 그 장소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그 수가 얼마나 적든지간에 전 세계 교회 회원들 모두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사랑을 전해 주었다.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확인하고 서둘러 모으시는 바, 여러분은 경이로운 사업의 일부입니다.”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 헌납**

3주간의 일반 공개와 문화 기념 행사의 뒤를 이어, 2013년 3월 17일 일요일, 3부에 걸친 행사에서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성전이 헌납되었으며, 온두라스 및 니카라과 교회 모든 단위 조직에 방송되었다.

여덟개 장시간 여행하여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을 방문할 수 있었던 온두라스 회원들은 그 나라 최초의 성전이 헌납되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이 성전은 2006년 6월 9일, 제일회장단 서한에서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2009년 9월 12일 헌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독일을 방문한 몬슨 회장**

2012년 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독일로 여행하여 독일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교회 회원들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권고하였다.

몬슨 회장은 “그분은 용서함으로써 용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라고 프랑크푸르트 회원들에게 말씀했다. “그분은 동정심을 베푸심으로써 동정심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몸소 바치심으로써 헌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성신이 저를 가르칩니다**

우리 가족이 교회에 들어온 뒤부터 저는 리아호나를 읽을 때 생기는 힘을 느꼈습니다. 제가 영감을 받아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된 것은 바로 그렇게 심오한 말씀 덕분입니다. 이 잡지는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것은 제가 읽을 때마다 성신이 제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쳐지는 원리들을 연구하고 읽으며 적용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적진”(보이드 케이 패커, “적진에서 생존하는 법”, 리아호나, 2012년 10월호 34쪽 참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구주는 살아 계시며, 신권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뉴튼 티 세난지, 우간다

**정정**

2012년 10월호 리아호나를 76~77쪽 기사 “인도에 첫 스테이크가 조직되다”에서 게재 사진 제공자를 잘못 밝혔습니다. 게재 사진은 글레디스 위그 자매가 촬영하였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012년 12월호 리아호나 24쪽 기사 “거룩한 탈바꿈”에 나오는 ‘비질’ 가족은 2011년 6월이 아니고 2010년 7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안드레아 비질은 2011년 8월이 아니라 7월에 태어났습니다.



# 식수대 앞에서 물을 마시며

앨런 엘 웨스트  
교회 출판부 편집자

**성** 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면 으레 사람들은 침탑과 창, 벽화를 언급한다. 침례반, 엔다우먼트 의식실, 인봉실, 해외 왕국실에 대해서는 경건하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선지자가 주님께 성전을 헌납할 때에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부분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헌납한다. 미주리 캔자스시티 성전 헌납 기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이 서 있는 땅을 헌납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있는 장엄한 모로나이상에 이르기까지, 이 아름다운 구조물의 모든 것을 헌납합니다.”<sup>1</sup>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유타 옥든 성전에서 헌납 기도를 드리시면서 “기초, 벽, 바닥, 천장, 탑, 건물의 모든 부분”을 헌납하셨으며, “모든 기술적인 부분, 전선관, 설비, 환기 시스템, 엘리베이터,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것”이 보호받도록 기도하셨다.<sup>2</sup>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성전의 모든 부분을 헌납하도록 영감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문 경첩이나 조명 시설이 인봉실 제단보다는 목적 면에서 덜 중요할지라도, 그러한 것들도 성전의 궁극적이고 높은 목적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의  
원천이시다.

이바지한다.

목적 면에서 덜 중요한 그런 것들에서도 나는 영원한 교훈을 배웠다. 어느 날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의식에 참여한 후 갱의실에서 막 나오던 때였다. 식수대가 눈에 들어오자, 목이 말랐던 나는 식수대로 가 물을 마시려고 얼른 몸을 굽혔다. 그때 내 머릿속을 스치는 메시지가 있었다.

성전에서 이 물을 마시는 나는 여기서 구할 수 있는 생명수를 정말 마시고 있는가?

그것은 심각한 비난이 아닌, 친절한 꾸짖음이자 내 영혼을 꿰뚫는 질문이었다.

그에 대한 내 답은 ‘아니요’였다. 나는 성전에서 생명수를 온전하게 마시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받으면서 초반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었지만, 정작 내게 필요한 도움을 모두 받으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제 매년 성전에 갈 때마다 식수대를 찾아서 물을 마신다. 그런 후 나는 생명수의 샘에서 얼마나 깊이 물을 들이키고 있는지를 자문한다. 그리고 나는 늘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대답을 한다. 오히려 내 갈증은 더 커지고 있다. ■

## 주

1. Thomas S. Monson, “Kansas City Missouri Temple: ‘Beacon of Divine Light’—an Offering of Hands and Hearts,” *Church News*, May 12, 2012, [ldschurchnews.com](http://ldschurchnews.com).
2. Joseph Fielding Smith, “Ogden Temple Dedicatory Prayer,” *Ensign*, Mar. 1972, 12.